현대불교
2020년 4월 22일 수요일 제 1290 호

COVID 19
셀프힐링

새 화관 쓴 눈부신 아침은 소슬한 종교

사라지는 날, 주(週), 해(年) 속에서 별들의 잔해가 뒹군다.

저 억겁 어둠 속에서 솟는 눈부신 아침을 맞으라.

어제의 실패를, 어제의 죽음을, 어제의 절망을 등지고

나무들은 새파란 대기 속에서 기쁨으로 일어선다.

아궁이엔 불길이 솟고, 집은 자라나며, 꽃들은 새 화관(花冠)을 쓴다.

높이 솟은 나무들과 노래하는 새들 속에서

맞는 새로운 아침은 우리의 소슬한 종교다.

우리는 아침마다 날씨와 바다를 배우기 위하여 새로 태어나야 한다.

글=장석주 시인 · 사진=박재완 기자

〈셀프힐링 관련 특집 2 · 3면〉



명상, 우울한 내 마음 처방전

책으로 배우는 힐링명상

모두가 힘든 시기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경제적 타격으로 곳곳에서 울상이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이 힘들다. 일상의 변화로 덩달아 움츠러든 마음은 좀처럼 밝아지지 않는다. 바로 명상이 필요한 순간이다.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이라 했다. 눈부신 봄을 마음 놓고 즐길 수만은 없는 이때, 내 마음 속에 도사린 우울의 실체를 관하고 진짜 나를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그 해법을 명상에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초심자의 첫걸음을 돕는 명상 길라잡이부터 체계적인 이론으로 이해도를 확 높여주는 지침서, 마음을 조근조근 달래며 방법론을 알려주는 힐링 명상서적을 한곳에 모았다. 최근 3년간 출간된 명상서 가운데 특히 이목을 끌었던 명상서를 소개한다.

▫ 쉽게 따라하는 명상 길라잡이

마음도 공부가 필요하다. 〈내 마음을 안아주는 명상 연습〉은 마음 전문가 최훈동 원장이 스트레스성 각종 질환으로 고통 받는 현대인들의 정신건강 회복을 위해 내놓은 마음공부 안내서다. 고통을 해결하는 길로서의 명상을 쉽게 이해하고 내면의 자비와 지혜를 일깨우는 명상법을 하나씩 알려줘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최훈동 지음/ 담앤북스 펴냄)

매일 하나씩의 주제를 제시해 10분 동안 명상함으로써 내면 치유를 돕는 〈10분 치유명상〉은 김응철 중앙승가대 불교사회학부 교수가 화두처럼 내민 하나의 주제를 통해 명상의 길로 안내하는 명상 해설서다. 일상 속 10분 명상이라는 점에서 초심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김응철 지음/ 불교신문사 펴냄)

〈끌어안음〉은 미국의 저명한 위빠사나 수행자이자 임상심리학자인 타라브랙이 '받아들임' '호흡하세요 그리고 미소지으세요' 출간 이후 7년 만에 선보인 책이다. 명상으로 두려움, 외로움, 상처와 마주하고 이를 치유해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담겼다. (타라브랙 지음 · 추선희 옮김/ 불광 펴냄)

한국명상심리상담연구원장 서광 스님이 '유식 30송'에 담긴 지혜를 심리치료에 적용, 현대적이고 치유적인 용어로 쉽게 풀어냈다. 이 책 〈세상에 끌려 다니지 않는 단단한 마음공부〉를 통해 대인관계와 사회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방법을 만날 수 있다. (서광 스님 지음/ 학지사 펴냄)

▫ 명상 진면목 담은 지침서

〈쉼의 기술〉의 저자 낄룽 린포체는 보다 깊고 온전한 '쉼'을 위해 티베트불교의 수행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7단계 명상 프로그램을 고안해 책에 담았다. 1주일에 한 번씩 1년 동안 진행한 명상 프로그램의 방법과 근간이 되는 가르침을 쉽게 풀어냈다. (쟈 낄룽 린포체 지음 · 행복수협 옮김/ 담앤북스 펴냄)

〈켄 윌버의 통합명상〉은 '통합 마음챙김' 안내서다. '의식연구계의 아인슈타인'으로 일컬어지는 저자는 현실과 괴리되지 않은 가운데 자신의 무한한 실재를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말한다. (켄 윌버 지음 · 김명권 외 옮김/ 김영사 펴냄)

〈존 카밧진의 왜 마음챙김 명상인가?〉는 마음챙김 명상의 핵심과 활용법들을 쉽고 간단하게 설명하면서도,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틀에얽매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호응을 얻는 책이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마음챙김 명상 교과서'라는 수식어를 갖고 있다. (존 카밧진 지음 · 엄성수 옮김/불광 펴냄)

전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다양한 명상의 뿌리는 깨달음의 종교인 불교의 창시자 고따마 붓다의 명상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혜담 스님의 책 〈고따마 붓다의 정관명상〉는 초기경전과 대승경전을 토대로 50년 수행 체험과 깊은 사유를 통해 명상의 본래 모습을 되살려냈다. (혜담 스님 지음/ 민족사 펴냄)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명상 100문 100답〉은 명상에 대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실용서다. 의학, 한의학, 불교학, 불교문화학 등 각 분야의 연구자 13명이 집필에 참여했으며, 명상의 전문적인 내용부터 구체적인 활용법까지 상세히 다루고 있다. (불교와사상의학연구회 지음 / 올리브그린 펴냄)

'마음챙김의 어머니' 엘렌랭어의 〈마음챙김〉은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 노화 · 창의성 · 직장생활 · 편견 · 건강까지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엘렌랭어 지음 · 이양원 옮김/ 더 퀘스트 펴냄)

▫ 가족 · 아이와 함께하는 명상

〈마음챙김놀이〉는 어린이를 위한 명상 안내서다. 집중하기, 고요하게 하기, 보기, 새롭게 보기, 돌보기, 연결하기 등 모두 여섯 가지를 토대로 한 60가지 명상놀이를 소개한다. (수잔 카이저 그린랜드 지음/이재석 역/불광 펴냄)

〈수미 런던의 가족을 위한 명상〉은 예일대 종교센터 불교 지도법사 수미 런던이 전하는 부모와 자녀 모두를 위한 명상서이다. 특히 마음챙김과 불교 가르침을 자녀 양육과 가정생활에 두루 통합하는 방법을 담고 있으며,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명상도 다양하게 제시한다. (수미 런던 지음/김미옥 옮김/담앤북스 펴냄)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독서삼매경'으로 코로나19 극복하자

평범한 일상이 사라졌다. 아직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밖보다는 안에서 생활하는 시간들이 많아졌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의 명상 · 힐링 콘텐츠나 홈트레이닝 영상을 찾아보고 있다고 한다. 넷플릭스 같은 OTT플랫폼의 소비가 늘었고, 모바일 · PC게임 관련 회사의 매출도 증가했다.

이젠 조금은 눈을 돌려 직관적인 콘텐츠를 소비하기보다는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자. 가장 추천하는 것이 독서다. 코로나 방학이 길어진 지금 집안에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익한 활동이기도 하다.

어쩌면 내 서재에 잠들어 있을 보물과 같은 책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일어나서 서재에 쌓인 불교서적을 꺼내보자. 이 역시 소소한 일상의 재발견이자 행복이 아닐까.

'코로나 블루' 치유, 색으로

불교 컬러링북 인기

3개월 째 지속 중인 코로나 사태로 인한 우울감과 무기력으로 인한 '코로나 블루', 조용히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코로나 블루 극복방안에는 불교 컬러링북을 활용한 것도 있다.

다양한 색으로 컬러링북에서 만다라를 그리며 몰두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한층 가벼워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불교계에서는 사경 · 사불수행과도 비슷하다는 점에서 그동안 수많은 컬러링북이 나왔다. 최근에는 한자, 만화 등 다양한 컬러링북의 형태가 나오고 있다.

도서출판 아름다운인연이 만든 〈심심한 생각 채우기〉는 사찰에서 마주치는 일상적인 풍경, 불교적 상상력이 가미된 용과 목어, 평화로운 사찰의 모습을 담고있다. 여기에 기존 컬러링북이 혼자만의 시간과 힐링에 초점을 맞춘 것에 비해 〈심심한 생각 채우기〉는 불교의 말씀을 담은 카드 15개, 한 권의 책으로 만날 볼 수 있는 엽서북, 카드로 구성 가능한 봉투 15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누똥바/아름다운인연 펴냄)



루덴스에서 펴낸 〈한자만다라〉는 동물, 자연 등을 나타내는 기초한자를 따라 그리며 한자의 원리를 이용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한자의 상형원리와 함께 주변부의 만다라 문양을 따라 그리며 집중력과 상상력도 함께 증진된다. 누리과정에 맞춰 만들어져 아이들과 함께 컬러링 삼매에 빠져보자. (이지정 저/루덴스 펴냄)담앤북스의 〈젠 만다라 컬러링북〉은 책 제목 그대로 만다라로 색칠하며 젠(zen) 스타일의 감성, 즉 마음의 안정과 평화로움을 되찾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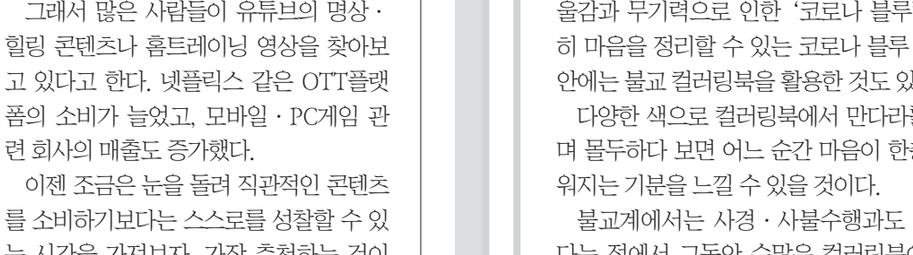
원형의 만다라를 기본으로 기하학적 패턴, 꽃과 나무 같은 자연 패턴 등 100가지 패턴이 수록돼 있다. 양장 표지로 만듦새가 튼튼하며 고급스러운 것이 장점이다. (Dessain et Tolra 저/담앤북스 펴냄)

부끄끄의 〈불교만다라 이미지 컬러링 북〉은 총 세권으로 구성되었다. 대부분의 컬러링북이 일반적인 주제의 컬러링에 맞춰져 있다면, 이 책은 전통만다라를 따라 그리는 것이 목표다. 1권에서는 깔라짜끄라 만다라 등을 중심으로 만다라 이미지, 2권은 불보살이미지, 3권은 신성한 상징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다. 보로부드르 만다라 등 그동안 접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만다라의 세계를 함께 접할 수 있다. (심상욱 저/BOOKK 펴냄)

이층버스서 선보인 컬러링북 〈오직 즐거움뿐〉은 〈관무량수경〉과 〈정토삼부경〉, 팔상성도를 따라 그리도록 구성했다. 특히 1장에서는 일볼을 바라보는 명상, 극락의 대지를 바라보는 명상 등 16가지 관무량수경의 관법을 표현해, 16관법 수행에 대한 이해도 높일 수 있다. 작가가 이끄는 대로 그림을 그리다 보면 마음속에서 환희심이 솟구칠 것이다. (박혜상 저/ 이층버스 펴냄)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폐렴균, 대장균, 포도상구균을 99.9% 정균 감소하는 치약(ORAL MATE®)·비누(BLOOD M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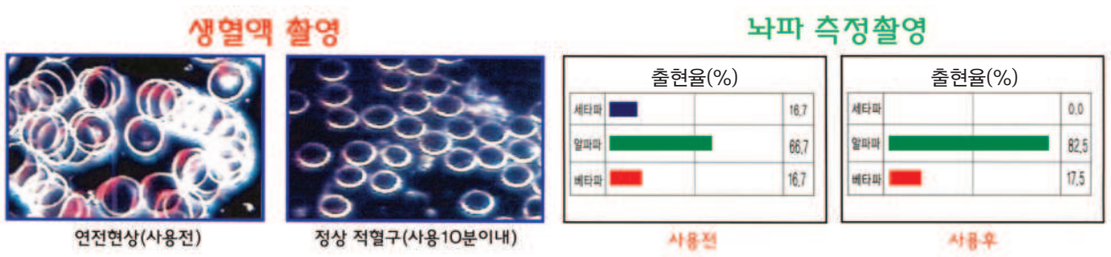
BLOOD MATE® (비누), ORAL MATE® (치약)의 폐렴균, 대장균, 포도상구균에 의한 항균시험 시험성적서

개발자 체험담
◉ 매년 겨울만 되면 감기로 고생했는데 BLOOD MATE®(비누) 거품으로 코 속을 마사지하여 감기를 잊어버린(나은) 경험.
◉ 비염, 축농증으로 코막힘이 심하고 누런 콧물이 자주 나왔는데 BLOOD MATE®(비누) 거품으로 코 속을 마사지한 후부터는 코가 뻥 뚫리고 누런 콧물이 없어졌다.
◉ BLOOD MATE®(비누) 거품으로 눈동자를 마사지하고 나서부터는 안경을 써야 볼 수 있던 신문을 안경 없이 볼 수 있고 눈동자에 힘이 생겼다.
◉ 개발자인 41년 3월생 남자 본인은 ORAL MATE®(치약)을 양치 후 뱉어내지 않고 삼켰더니 식중독, 소화불량, 배탈, 설사가 없고 이틀에 한 번씩의 샤워로 6년 동안 감기, 몸살을 앓아 누워본 적 없다.
◉ 잇몸이 아프거나 이가 시릴 때에는 ORAL MATE®(치약)을 부위에 발라주면 통증이 그냥 없어진다.

폐렴균, 대장균, 포도상구균을 99.9% 정균 감소하는 치약(ORAL MATE®)을 양치 후 뱉어내지 않고 그대로 삼키면

1. 폐렴균에 의한 질환 개선. 2. 식중독, 소화불량, 배탈, 설사를 예방. 3. 과식, 과음시에는 소화제나 숙취해소 약을 먹는 것 보다 속이 빨리 편해지고, 술이 빨리 해독되면서 정신이 맑아진다.
4. 별도의 잇몸약이 필요없을 정도로 잇몸이 튼튼해지며 이나 잇몸이 아플때에는 치약을 아픈 부위에 발라 놓으면 밤새 통증이 사라진다.

폐렴균, 대장균, 포도상구균을 99.9% 정균 감소하는 비누(BLOOD MATE®)를 단 한번 쓰고, 연전현상의 적혈구가 정상적 적혈구로



보약을 먹은것도 아니고 주사를 맞은것도 아닌데 BLOOD MATE®비누를 단 한번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연전현상의 엉켜있는 적혈구가 정상적혈구로 뇌파가 안정되며,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므로 허리, 목, 어깨의 통증과 다리에 쥐가 나는것을 개선하는 효과.

포도상구균(화농성 세균)을 99.9% 정균 감소하는 BLOOD MATE®비누는 아토피, 무좀, 가려움증, 비듬, 발뒤꿈치각질, 체취 등 각종 피부질환을 없애주고 때를 일부러 밀지않고 거품으로 마사지하면 깨끗이 세정되는 특징과 피부 보습과 투명피부의 효과로 스킨, 로션을 바르지 않는다.

BLOOD MATE® 강비누: 25,000원2개 = 50,000원
BLOOD MATE® 순비누: 15,000원5개 = 75,000원
ORAL MATE® 치 약: 21,000원3개 = 63,000원
~~188,000원~~ ➡ SET 구매시 100,000원

㈜에이스 삼강 02)353-9692 010-2791-3696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

세정제인 비누, 치약이 별도의 추가부담없이 비누는 피가 맑아져 혈액순환 정상화에 의한 피부질환 개선, 치약은 잇몸건강은 기본이고 소화불량, 식중독, 배탈, 설사가 없어진다면 이는 정부가 생산활동을 막을것이 아니라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보호하고 장려 육성하는 것이 국가의 올바른 정책입니다.

독서로 '불교 박사' 되어볼까

'집콕'하며 읽을 불교 서적들

코로나19 확산으로 집에 있을 시간이 많아졌다. 유튜브를 통해 힐링 콘텐츠를 시청하며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것도 좋지만, 독서에 시간을 투자해보는 것은 어떨까. 평소에 보지 못했던 불교 서적이 있다면 한번 찾아 읽어보는 것도 좋다. 도서총판을 운영하는 조계종 불교전문서점과 운주사에 불교입문 및 강설 · 불교사 서적을 추천받았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 쉽고 재미있게 성찰하자

최근에는 어렵지 않게 접근하는 불교 입문서들을 찾기 쉽다. 〈벼리는 불교가 궁금해〉는 10대를 위한 불교 입문서다. '부처님은 신일까 사람일까' '부처님은 무엇을 깨달았을까' 등 불교에 대한 근본적 질문에 대한 답을 도서관 할아버지가 벼리라는 아이에게 옛날 이야기하듯 잔잔하게 전한다. 중간 중간 삽입된 권용득 작가의 카툰들은 내용의 몰입도를 높인다. (글=변택주 · 그림=권용득/불광출판사 펴냄)

복잡한 내용을 정리하는 데 도표만한 것이 없다. 이자랑 동국대 HK교수와 이필원 동국대 경주캠퍼스 파라미타칼리지 조교수가 글을 쓰고 배종훈 불교 전문 카툰 작가가 그린 〈도표로 읽는 불교 입문〉은 제목 그대로 불교 교리를 도표로 정리해낸 입문서다. 도표만 봐도 불교의 윤곽이 그려지고, 어렵게 느껴졌던 불교에 성큼 다가설 수 있게 해준다. (글=이자랑, 이필원 · 그림= 배종훈/민족사 펴냄)

조계종 포교원이 편찬한 〈불교입문〉은 말 그대로 불교 입문서계의 스테디셀러다. 1996년 9월 초판 발행 이후 수차례 증보됐고, 2017년에는 개정판이 나왔다. 현재에는 조계종 신도기본교육 교재로도 사용 중이다. 부처님 생애부터 불교 전반 상식, 조계종사와 조직, 불자 예절 등 전반에 걸쳐 상세히 기술했다.(조계종 포교원 편찬/ 조계종출판사 펴냄)

초기불교를 공부하고 싶은 불자들에게는 초기경전 연구 · 번역을 선도했던 각묵 스님이 지은 〈초기불교입문〉를 추천한다. 저자 각문 스님은 초기불교의 개요부터 교학, 수행까지 전반을 상세하고 쉽게 풀어낸다.(각묵 스님 지음/초기불전연구원 펴냄)

〈불교인문주의자의 경전 읽기〉는 지금은 원적한 일지 스님이 남긴 글을 모은 것으로 2000년 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월간 〈불광〉에서 연재한 것이다. 불자들이 삶 속에서 생각해봐야 할 24개의 주제를 제시하고, 각각의 주제를 경전에서는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지 살폈다. 불교를 통해 얻은 깨달음을 어떻게 삶과 연결하고 실천할 지를 고민하고 사유한 불교인문주의자의 사색과 성찰의 궤적을 따라갈 수 있는 책이다.(일지 스님 지음/어의운하 펴냄)

▫ 흥미진진 불교사 만나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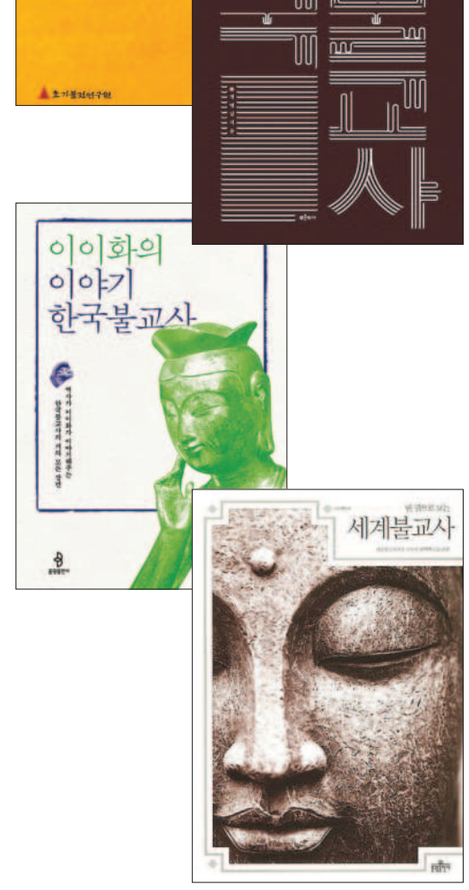
역사 이야기만큼 흥미진진한 것이 없다. 역사는 한 분야의 시작을 알 수 있는 중요한 학문 분야이기도 하다. 불교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교사를 알아야 한다.

한국불교사에 대해서는 전문학자 2인의 책을 각각 추천한다. 사람에 따라 난이도가 조금 있을 수 있으나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따라간다면 쉽게 읽을 수 있다.

먼저 정병삼 숙명여대 역사문화학과 명예교수의 〈한국불교사〉는 불교의 한반도 전래부터 현대산업사회 불교까지 통사(通史)적으로 풀어냈다. 특히 사상과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불교를 다뤄내 흥미롭게 읽힌다.(정병삼 지음/ 푸른역사 펴냄)

최근 별세한 이이화 선생이 만년에 저술한 〈이이화의 이야기 한국불교사〉는 통사적이지만 그 시선은 민중으로 가 있다. 그렇기에 이이화 선생은 불교의 밝은 면을 보여주지 않는다. 밝기에 나타나는 그늘을 보여줌으로서 지금의 불교가 나아갈 길을 제시한다.(이이화 지음/불광출판사 펴냄)

〈한 권으로 보는 세계불교사〉는 조계종 승가대학 교재지만 일반인이 읽기에도 어려움이 없다. 인도에서 불교의 태동부터 전개, 동남아시아 · 중국 · 대만 · 티베트 · 몽골 · 일본 불교의 역사를 개론적으로 풀어냈다. 하버드대학에서 수학한 명법 스님이 쓴 미국불교사 챕터도 흥미롭다.(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편찬/ 불광출판사 펴냄)



따뜻한 감성 카툰 '힐링' 저절로

가족이 함께 읽는 불교 만화

카툰(cartoon)은 두꺼운 종이에 그려지는 밑그림을 의미했으나 현재에는 '한 컷으로 그리는 만화를 통칭하는 용어' 로 사용된다. 한 컷을 통해 함축적으로 내용을 전달해야 하는 '카툰' 이라는 장르는 그런 이유에서 인지 선(禪)과 닮았다. 코로나19로 우울한 요즘 따뜻함을 전하는 한 · 중 · 일 '불교 감성 카툰' 을 전한다.

어라, 그런대로 안녕하네

1세대 불교 웹-카툰 작가인 지찬 스님의 〈어라, 그런대로 안녕하네〉는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불교 카툰이다. 하체보다 더 커 보이는 상체로 존재감을 드러내는 2등신, 만 가지 표정을 넉넉히 담아내고도 남는 크고 둥근 머리, 늘 좌충우돌하지만 '이 뭣고?' 자세로 돌아보고 성찰하는 동자승 '어라 스님' 은 지난 2016년 당시 대중들에게 인기를 누렸다. 실제 어라 스님은 '카카오톡' 이모티콘으로 판매될 정도로 인기가 좋았다.

〈어라 그런대로 안녕하네〉는 스님이 2012~2016년까지 블로그를 통해 연재한 이야기를 선별해 묶어낸 것으로 소소한 일상에서 나오는 재치와 성찰을 지금 보아도 미소를 짓게 만든다. 이후 후속작이 없다는 게 아쉬운 점이기는 하다.

동자승의 하루

연인끼리 키스하는 모습을 본 동자승이 동그란 눈망을 깜빡이며 사부인 노스님에게 질문한다. "사부님, 저 사람들은 왜 서로 입술을 깨물어요?" 턱수염이 매력적인 사부는 이렇게 말한다. "서로를 몰라서 입술을 맞대는 거란다." 이 말을 들은 동자승은 부처님상과 나무에 입술을 맞대며 감사 인사를 전한다.

수묵화풍의 그림 속에 동자승 이찬의 소소한 일상을 전하는 〈동자승의 하루〉는 중국 웨이보에서 2016년 10월부터 연재한 웹툰을 모아 발간한 카툰집이다. 따뜻한 감성의 이 웹툰은 중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현재까지 누적 조회수 7억뷰를 기록했다.



동자승 이찬이 갖는 호기심과 질문들은 우리를 사유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그 질문들을 따라가다보면 번접한 세상 속에 고요함을, 냉정함 속에서 온화한 마음을 찾게 해줄 것이다.

'부처와 돼지' 시리즈

불교만화를 하나만 추천하라면 단연 '부처와 돼지' 시리즈다. 1993년 일본에서 초판이 발행되고 10년 후인 2013년 신장판이 발행된 〈부처와 돼지〉는 2019년 현재 일본에서만 200만부를 넘어선 판매고를 올렸다. 광고회사 아트디렉터로 일하던 저자 고이즈미 요시히로는 이 시리즈에 대한 독자들의 꾸준한 호응에 힘입어 전업작가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책에 등장하는 '덜돼지' 라는 의인화된 캐릭터가 겪는 현실들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 사랑에 매였다가 실연에 고통받고, 좋은 대학과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마치 전쟁과 같은 경쟁을 치르다가 목표를 이루지 못해 자신을 탓하는 장면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

여기에 직접적 해답은 전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고민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사물을 인식하는 마음버릇에 있음을 지적할 뿐이다. 자신의 마음버릇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때 사물은 전혀 다르게 보이게 된다. 전에는 왜 그렇게 괴로워했는지 생뚱맞다는 느낌마저 갖게 된다. 그렇게 시선이 바뀌는 것을 '발견' 이라고 한다. 이것이 바로 일상의 깨달음이 아닐까. 그 깨달음은 우리를 성장시킨다. 신성민 기자

“한국불교 중흥” 30만 불자 정성 모았다

조계종 백만원력결집 1주년… 110억 원 모연

부다가야 분황사 건립 등
5대 목적 사업 추진 계획
9일 회의서 종단불사 포함
발우저금통 2차 제작 예정
“대중들 릴레이 동참 감동”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한국불교 중흥을 견인할 조계종 백만원력 결집불사가 시작된지 꼭 1년을 맞았다. 1년간 국내외 불자 30만명의 원력과 정성으로 110억여 원이 모연됐다. 순수 모연을 통해 단기간 조성된 기금으로는 유례없는 수치다. 한국불교 미래를 향한 불자들의 간절한 서원이 그 토대이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다.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백만원력결집위원회(위원장 금곡)는 4월 13일 백만원력결집불사의 1년 성과를 발표했다. 2019년 4월 19일 ‘백만원력결집을 위한 모연선포식’ 이후 올해 3월 31일까지, 정기후원(CMS)과 전화(ARS), 지로, 계좌이체(저금통) 등 여러 가지 모연방법을 통해 집계된 금액은 110억 90만원에 달한다. 통도사가 기증한 인도 부다가야 현지 토지를 금액으로 환산한 30억원을 제외하더라도 80억여 원이 순수 보시금인 셈이다. 약정형태로 동참한 불자들이 상당수인 만큼, 잔여약정금도 15억여 원 가량으로 집계되고 있다.

백년대계본부 사무총장 일감 스님은 “처음 총무원장 스님의 원력으로 백만원력결집불사를 시작할 때, 한국불교 미래를 위한 간절한 서원은 있었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낙관할 수 없었다”며 “그러나 진심으로 세운 원력은 또 다른 원력으로 이어져 천진불부터 노보살까지 십시일반 원력이 차곡차곡 쌓였다. 불교의 미래를 위해 정성으로 동참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백만원력결집불사는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 건립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세우기 △계룡대 호국사 영외법당 건립 △불교 요양병원 · 요양원 건립 △나눔 등 5가지다. 이 가운데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불사는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 건립불사와 계룡대 호국사 영외법당 건립불사 두 건이다. 인도 분황사는 올 3월 예정된 기공식이 코로나 19사태로 연기되면서 올 9월 법회형태로 봉행될 예정이며, 계룡대 호국사 영외법당 역시 착공식을 앞두고 있다.

실현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았던 마애부처님 입불(入佛) 불사는 문화재청 허가 및 경주시와의 합의, 구체적인 입불 방법연구 등 산적한 과제가 남았지만, 서두르지 않고 예경의 대상으로서 원력을 모아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 후부터 전국 불자들이 마애부처님을 참배하고 예불할 수 있는 법석을 정기적으로 봉행할 예정이다. 요양병원 건립불사는 현재 동국대 일산병원 인근부지를 예정지로 낙점하고, 토지교환 등 협의가 진행중이다.

이런 가운데 백만원력결집위원회는 4월 9일 전체회의를 통해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세종시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건립 △10.27법난 기념관 건립 △위례신도시 상월선원 건립 등 종단 주요불사 5가지를 포함키로 했다. 백만원력 결집이라는 목표 아래 위원회가 총괄관리를 맡아,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불사를 관리 · 운영하기 위함이다. 기존 불사별로 구성됐던 위원회 및 전담부서는 그대로 유지된다.

일감 스님은 “원장 스님의 확고한 원력, 불자들의 정성과 동참 덕분에 1년만에 이례적인 성과를 이뤘지만 백만원력결집불사는 길게, 그리고 멀리 바라보고 시작한 불사”라며 “한국불교 미래의 토대를 다지기 위한 불사에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백만원력결집불사추진위는 탁발을 위해 배포하는 ‘발우저금통’의 2차 제작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발우저금통은 기존 저금통이 일회용이라는 단점을 보완해, 디자인은 유지하면서 개폐가 가능한 형태로 제작, 배포될 예정이다.

해외 스님 분한신고 6월 30일로 연기

조계종이 해외거주 스님에 한해 분한신고 서류마감 기한을 6월30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4월 9일 ‘해외사찰 스님들과 불자들에게 드리는 글’ 제하의 서한을 해외 각국 지회와 사찰, 포교당 등에 발송했다. 특히 원행 스님은 해당 서한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분한신고 서류제출 과정상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해외에 계시는 스님들의 고충을 헤아려 이번 분한신고에 필요한 증빙서류 마감 기간을 6월 30일로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분한신고 마감일은 국내외 관계없이 4월 30일까지다.

원행 스님은 “각 나라마다 처한 상황과 대응체계가 다르지만 포교의 뜻을 품고 이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겪는 어려움은 더 클 것”이라고 위로를 전했다.

송지희 기자



조계사 선재어린이집 원아들과 스님들이 코로나19 극복 메시지를 담은 그림을 달고 있다.

“코로나, 우리 함께 이겨내요!”

조계사, 선재어린이집 원아그림 전시회 개막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천진불들과 불자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였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4월 14일 ‘코로나19 함께 이겨내요’를 주제로 한 선재어린이집 원아 그림 전시회를 개막했다. 선재어린이집 원아 20여 명과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을 비롯한 사중 스님들은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개막식을 열고 테이프 커팅을 비롯해 소원지 달기 등을 진행했다.

이번 전시전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코로나를 예방해요’ ‘엄마 아빠 함께 이겨내요’ 등 아이들이 그린 작품 30여 점이 전시됐다.

테이프 커팅에 이어 스님들은 직접 아이들과 그림을 둘러보고 함께 응원메시지를 작성했으며, 전시회 가운데 설치된 코로나 극복 응원 소원지 오색줄에 함께 소원지를 달고 참여한 아이들에게 스마일배지를 선물했다.

선재어린이집 숲속반 김태희 어린이는 “코로나를 마스크를 쓰면 막을 수 있어요. 마스크가 얼굴을 가리지만 손도 열심히 씻고 하면 돼요”라고 밝게 웃었다.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은 “아이들이 체험, 현장학습 등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코로나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또 그림을 통해서 코로나 극복에 대한 순수한 마음을 표현하며 밝게 자라길 바란다”며 “아이들의 그림을 보는 많은 시민들이 함께 기원한다면 코로나 극복이 성큼 다가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아이들의 마음을 담은 그림은 4월 26일까지 조계사 경내에서 전시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코로나19, 회의도 복지도 바꿨다

포교사단, 4월 14일 전국 임원 화상회의

서울노인福 유튜브 제작강의
종로 · 옥수 등 ‘정서지원’ 실시

코로나19 장기화로 복지서비스 공백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불교계 단체와 일선 복지관들이 변화하고 있다.

조계종 포교사단(사단장 방창덕)은 4월 14일 서울 우리함께빌딩에 위치한 포교사단 본부에서 2020년 2차 임원회의를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포교사단은 2010년 화상회의 시스템을 도입했다. 포교사단이 구축한 화상회의 시스템은 현재 17명이 동시접속이 가능한 상황이다.

방창덕 포교사단장은 회의에 앞서 “수십명이 모이게 되고, 전국에서 대중교통으로 이동해야 하기에 부득이 하게 화상회의로 2차 임원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며 “소통을 통해 포교사단 주요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서는 포교사단 창립20주년 기념법회 및 팔재계 수계법회 실시방안 의건, 백만원력 결집불자 추진의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포교사단 기도정진의 건 등 중요사업이 대부분 의결됐다.

회의는 김영석 포교사단 수석부단장의 사업 안내와 함께 차분함 속에서 진행됐으며, 제청과 의견 개진 등이 활발하게 진행됐다.

일선 복지관의 복지서비스도 변화하고 있다. 서울노인복지센터(센터장 희유)는 4월 16일 탑골미술관에서 예정된 ‘2020세대기획전-나이 · 차이 · 그 사이’ 전시회 개막전을 유튜브로 공개한다. 개막전 현장에는 ‘감염예방 거리’를 준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만 입장, 개막 공연과 전시 설명 등 행사진행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 현장에 오지 못한 어르신들도 현장을 느낄 수 있도록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연꽃마을 산하 연천노인복지관도 올 4월부터 비대면 영상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어르신 대상 사회교육프로구램 31개 과목을 복지관 직원 및 강사들이 직접 촬영 · 제작한 영상을 매주 1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카카오톡에 업로드한다.



방창덕 사단장이 화상회의서 의결하고 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은 4월9일부터 일주일 간 80명의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상추키우기 세트를 전달했다. 상추키우기 세트는 혼자 집에서 보낼 시간이 늘어날 어르신들이 소일거리를 통해 자기위로와 우울감 해소를 할 수 있도록 고안된 프로그램이다.

노덕현 · 송지희 기자

화엄사 사부대중들 ‘자비의 헌혈’ 동참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혈액 수급난 해소를 위해 스님들이 나섰다.

구례 화엄사(주지 덕문)는 4월 10일 덕문 스님을 비롯해 대중 스님들과 종무원, 신도 등 50여 명이 최근 수급난을 겪고 있는 응급 혈액의 해소를 위해 ‘자비의 헌혈’ 행사를 갖고 헌혈 나눔에 동참했다.

덕문 스님은 “언론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헌혈이 줄어들어 혈액이 많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접하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자비의 헌혈 동참 행사를 마련했다”고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 만큼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가 하루 빨리 소멸되기를 바라며 부처님께 기도하겠다”고 덧붙였다.

화엄사 헌혈행사는 대한적십자 헌혈차가 도착한 후 오전 9시부터 시작해 오후까지 이어졌다.헌혈을 기다리는 시간에도 사부대중들은 사회적 거리를 유지한 채, 버스에 탑승해 4명씩 헌혈에 동참했다.

자비의 헌혈 이외에도 화엄사는 각 황전에서 코로나19극복을 위한 성금 500만원을 구례군을 통해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이번 지정기탁금은 군내 복지사각지대 우선대상자 5가구에게 전달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시공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

‘대장경’ 국난극복 정신, 60년 넘어 재현

해인사, 4월 11일 ‘제60회 팔만대장경 정대불사’ 거행

대장경의날 60년 맞아 준비
코로나 예방위해 소규모 진행
〈금광명경〉 합송, 극복 기원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전쟁, 질병, 가난, 삼재는 사람들의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빚어집니다. 탐진치라고 불리는 이 세 가지 원인을 바로잡아 세상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가라는 것이 바로 팔만대장경의 가르침입니다.”

몽골의 침입 당시 국난을 극복하고자 조성된 팔만대장경,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가와 세계를 위해 팔만대장경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이 마련됐다.

합천 해인사(주지 현응)는 4월 11일 ‘제60회 해인사 고려팔만대장경의 날 정대불사’를 해인사 일대에서 봉행했다. 매년 성대하게 열린 정대불사였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국난을 극복하는 기도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해인사는 코로나19 사태 전부터 대장경의날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대대적인 행사를 준비해 왔다. 하지만 모든 행사를 축소하고 일정도 조정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와 초대 내빈을 대폭 축소하고 방역과 예방에 최선을 다했다.

행사에는 방장 원각 스님과 총무원장 원행 스님, 주지 현응 스님을 비롯해 주지 말사 스님 외 일반 대중은 20여 명이 동참했다. 대중들은 모두 마스크를 끼고 거리를 유지했으며 방역을 위해 철저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사부대중은 인류를 위한 평화 메시지를 전달하고 코로나19 극복을 기원하는 〈호국금광명경〉을 팔만대장경이 있는 장경판전 앞에서 합송했다. 욕심과 어리석음을 버린 성숙함이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달되기를 기원했다.

1부는 대적광전에서 봉행됐다. 육법공양과 방장 원각 스님,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분향으로 법회가 시작됐고 헌다와 헌화가 이어졌다. 팔만대장경 조성과 수호를 위한 영상이 상영되었으며 고유문 낭독과 법요식 및 법문으로 팔만대장경의 조성 의미를 기렸다.

방장 원각 스님은 “ ‘많은 이가 아프기 때문에 나도 또한 아프고 그들이 낫는다면 나의 병도 나을 것이다’ 라 했던 유마거사의 동체대비 정신을 다시 한 번 더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며 “전염병으로 인한 재앙이 하루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팔만대장경을 한 자 한 자 깎아 내던 그 정성으로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야 되겠다”고 법문했다.


법보종찰 해인사가 ‘제60회 해인사 고려팔만대장경의 날 정대불사’를 4월 11일 해인사 일대에서 봉행했다. 해인사는 정대불사를 코로나19 확산예방 및 국난극복기도로 회향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팔만대장경 평화 메시지를 전달하며 인류 평화를 기원했다. 원행 스님은 “우리 다함께 평화의 길로 가자”며 “다툼의 극대화가 아닌 자비 공동체를, 미혹한 자가 아닌 지혜로운 자의 길을, 분열된 이기심이 아닌 통일된 이타심이 곧 평화이다”고 평화의 마음을 재차 강조했다.

주지 현응 스님은 “고려팔만대장경의 날 기념법회는 팔만대장경의 정신과 대장경을 조성한 뜻을 기려 전쟁, 질병, 가난 등 이 시대 모든 재난을 극복하고 세상의 안녕과 평화를 기리고자 마련한 시간”이라며 “올해 기념법회는 확산일로에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사태의 조속한 종식, 그리고 국가사회의 안녕과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행사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2부는 장경판전 마당에서 모든 대중이 모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도로 진행됐다. 대중들은 〈호국금광명경〉을 합송하며 세계에 평화가 가득하길 기원했다. 〈호국금광명경〉은 나라를 지키는 호국 경전으로 금빛 같이 밝은 경이란 뜻을 가졌다.

3부는 장경판전 법보전에서 시작해 학사대와 해인도가 그려져 있는 구광루 앞으로 자리가 이어졌으며 합장 순례 및 정대요잡이 진행됐다. ‘정대’는 존경의 의미로 대장경판을 머리에 이고 받든다는 의미이다. 참석 대중은 팔만대장경 경판을 머리에 이고 이운의식을 재현했다.

정대요잡은 조선 태조 7년(1398년) 장경판을 강화도 선원사에서 해인사로 이운 할 때 신도들이 경판을 머리에 이고 옮긴데서 유래했다. 이후 팔만대장경 정대불사는 1961년 팔만대장경을 수호하기 위해 일제 강점기에 ‘해인봉찬회’를 조직한 영암 스님의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봉행됐고 양력 4월 둘째 주 금, 토 이틀에 걸쳐 60년 동안 진행한 역사적인 행사이다. 2016년 5월에 ‘해인사 고려팔만대자경의 날 기념법회’로 명명해 행사는 확대됐다.

4부는 보경당 특설제단에서 팔만대장경 및 장경판전 공덕주의 공덕을 기리는 헌다례로 마무리 됐다.

한편, 해인사는 11일 행사장에서 조계종 백만원력결집불사 기금으로 5000만원을 기부했다.

꾸준히 이어지는 코로나 자비행

종단협 등 성금 및 물품 기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불교계의 자비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원행)는 4월 13일 재난구호 모금전문기관인 희망브릿지 재해구호협회에 ‘코로나19 대응 기금’ 1억원을 기부했다. 전달식에는 종단협 사무총장 지민, 조계종 사회부장 덕조, 종단협 사무처장 진경 스님이 참석했다.

종단협 사무총장 지민 스님은 “물결치는 언덕을 같이 헤쳐 나가자는 뜻으로 불교계가 함께 마음을 모았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극복되기를 부처님께 서원하며 성금을 모연했다”고 말했다.

지역에서도 조계종 영덕사암연합회가 4월 16일 영덕군을 찾아 코로나19 특별기금 350만원을 전달했으며, 조계종 영주사암연합회도 4월 12일 영주시에 코로나 극복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조계사 불교대학 총동문회는 4월 12일 조계사에 코로나 자비나눔 1000만원을 전달했다.

문수복지재단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춘성)도 4월 13일 ‘사랑의 손길 함께해요 어르신·장애인을 위한 긴급 대체식 나눔’을 복지관 내 마당에서 진행했다.

노덕현·하성미 기자

21대 국회의원 선거 불자 당선인은

정각회 활동 인물 다수
불자대상 수상자도 입성
정각회 인원 줄어들 듯
동국대 동문 17명 당선


김두관 김영주 이광재 이원욱 주호영 홍문표 *가나다 순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불자 후보 30여 명이 당선돼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이번 총선 개표 결과에 따르면 출마한 불자 후보 50여 명 중 30여 명이 당선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대 국회보다 정각회 인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불자 당선인으로는 불자 국회의원 신행단체인 정각회 부회장 출신의 김영주(서울 영등포갑) 당선인과 정각회 간사장·부회장을 역임한 이원욱(화성시을) 당선인을 꼽을 수 있다.

대표적 불자의원으로 꼽히는 김두관(양산시을) 당선인은 치열한 접전 끝에 당선의 영예를 얻었다. 김두관 당선인은 지난 2007년 조계종 前 종정 법전 스님에게 ‘웅기(雄氣)’라는 법명을 받고 불교에 귀의한 바 있다.

강원도지사를 역임한 이광재(원주시갑) 당선인은 10년 만에 정계에 성공적으로 복귀했다. 제17, 18대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국회 정각회 간사장과 민주당 국회의원 불자모임인 연등회 회원으로 활동했었다.

이밖에도 민주당 불자 국회의원 당선인으로는 서영교(중랑구갑)·진선미(강동구갑)·강선우(강서구갑)·정춘숙(용인시병)·박영순(대전 대덕구)·이개호(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오영훈(제주시을) 등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위성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서도 다수의 불자 의원이 배출됐다. 눈길을 끄는 인물은 단연 김병주 당선인이다. 김병주 당선인은 지난해 불자대상을 수상한 예비역 군장성으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재직 당시 제13대 국군불교총신도회 회장을 맡았던 신행경력을 갖고 있다.

미래통합당 불자 국회의원 당선인은 불교세가 강한 경남·경북 지역에 몰려 있다. 대표적 불자 국회의원으로 꼽히는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당선인은 제17대 총선에서 ‘대구 수성구을’로 출마해 당선된 이래 제20대까지 당선됐다. 이번에는 ‘수성구갑’으로 출마·당선돼 5선의원이 됐다. 제20대 국회에서는 전반기 정각회 회장을 역임했다.

국회 정각회서 활동한 홍문표(충남 예산홍성)·이종배(충북 충주)·서병수(부산진구갑)·임이자(경북 상주문경)·김석기(경북 경주)도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이밖에도 백종헌(부산 금정)·정동만(부산 기장군)·박대출(경남 진주시갑)·정점식(경남 통영고성군) 당선인 등도 불자로 알려졌다.

또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김태호 前 경남도지사(산청함양거창합천)도 신심 높은 불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불교종립 대학 동국대 동문 국회의원들도 19명이 나왔다. 동국대 총동문회에 따르면 제21대 총선에서 지역구 17명, 비례대표 2명 등 총 19명 동문이 당선돼 동국의 정치학맥의 위상을 높였다.

주요 당선자로는 4선에 성공한 홍영표(철학78, 더불어민주당, 인천부평을)·노웅래(언론정보99, 더불어민주당, 서울마포갑) 당선인을 비롯해 이상직(경영82, 더불어민주당, 전주을)·이주환(경제85, 미래통합당, 부산연제구)·구자근(법학86, 미래통합당, 경북구미갑) 등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공주 이달의 인물 ‘화승 약효 스님’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4월 이달의 역사인물로 마곡사를 중심으로 오늘날까지 전통불화의 맥을 잇게 한 최고의 화승 ‘금호당 약효 스님’을 선정했다. 금호당 약효 스님(1846~1928)은 마곡사를 중심으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불화를 그렸던 화승으로 ‘계룡산화파’를 형성, 전통불화의 맥을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한 인물이다.

속성은 김(金), 당호는 금호(錦湖), 법명은 약효(若效)인 금호당은 20대 초 출가하여 마곡사에 머물면서 불화를 그리며 후학 양성에 힘쓰다가 1928년 83세의 세수로 입적했다.

공주시는 전통불화의 맥을 잇고 몸소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한 금호당 약효 스님의 삶과 업적을 기리기 위해 4월 이달의 역사인물로 선정하고 마곡사와 연계해 약효 스님 특강 및 어린이 그림그리기 프로그램 등을 코로나19 상황 해제 이후 추진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푸르게살라

모든 어려움이 모두를 살리는 지혜로 화하길 발원합니다

대행선사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한마음선원 진주봉사단이 지역주민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소통하는
휴게음식점 “푸르게살라”는 2월 초부터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하여 영업을 쉬고 있지만
4월 말에는 다시 지역주민과 함께 하기를 희망합니다



진주봉사단 일동
경남 진주시 미천면 오방로 528-40번지

현불 논단

위험사회와 근대문명



방영준
성신여대 윤리교육과
명예교수

울리히 벡의 저서 〈위험사회〉
"사회 발전할수록 위험" 주장
사람 의해 '생산된 위험' 의미

문명 발달… 파국 가져올 수도
코로나19도 인간이 만든 재앙
벡 주장 '성찰적 근대화' 필요

붓다의 가르침에 해답이 존재
연기론 바탕 '자비생명공동체'
이 같은 공동체 구현 실천을

온 지구촌이 코로나19로 인해 큰 '위험'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필자가 위험이라는 단어에 따옴표를 사용한 것은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Ulrich Beck)이 지은 〈위험사회(Risk Society)〉가 생각났기 때문이다. 이 책은 1986년에 출간된 삼십여 년이 지난 책이지만 저자의 뛰어난 통찰과 예지에 오늘날에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울리히 벡은 두 번이나 한국을 방문했고 한국 불교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2008년 봉은사를 방문하면서 '무애거사'라는 법명을 가지기도 했다. 두 번째 방한 다음 해 2015년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자 한국에서 불교식으로 추도식이 있었다. 울리히 벡의 말을 인용해 보자.

"지금 인류는 문명의 화산 위에 서 있는 위험사회에 살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자연을 이용하거나 인류를 전통적 제약에서 해방시키는 데에만 관심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기술적, 경제적 발전 자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울리히 벡은 사회가 발전될수록 위험사회가 될 것이며, 그 위험은 지역과 계층에 관계없이 평준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21세기의 위험은 자연재해와 같은 불가항력적 재난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생산된 위험'이라는 것이다. 그는 근대문명의 발달로 인한 인류의 파국을 막기 위하여 '문명적 탈바꿈'을 주장하면서 '성찰적 근대화'를 주장한다.

오늘날 코로나19로 겪는 사람의 고통은 결코 자연재난이 아니라 인류의 문명이 만들어낸 생산된 위험이다. 오늘날 지구촌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코로나19의 고통은 벡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표적인 위험사회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어쩌랴. 코로나19로 호모사피엔스가 움츠리고 있는 동안 지구별의 환경이 깨끗해졌다니.

과학 기술의 발전과 자연에 대한 조작기술의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인간은 새로운 욕구를 계속 불러일으켰으며, 또한 새로운 욕구 충족은 새로운 욕구 창출의 계기를 만들어 줌으로써 요구 충족과 욕구 창출 사이에는 끊임없는 상승작용이 일어나는 것이다. '욕망이라는 전차'를 타고 절벽을 향해 달리는 것이리라. 250여 년간 쌓아 올린 서구의 그 오만한 근대 과학문명이 이번 코로나19 앞에서 얼마나 무력했던가를 우리는 볼 수 있다.

이러한 위험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성찰적 근대화'의 지혜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그 지혜의 보고는 붓다의 가르침에 가득 담겨있다. 울리히 벡이 불교에 깊은 친화력을 가진 것은 붓다의 지혜 때문이 아닌가 싶다.

붓다의 이상에는 생명, 생태 사회의 구현이 있다. 이것은 연기론에서 나온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연기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상의 상관성' 또는 '의존적 상호발생'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기론에서 '생명평화 자비 공동체 구현'이라는 과제가 등장한다.

생명평화 자비 공동체는 인간을 비롯하여 동식물, 무생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존재가 어깨동무하며 함께하는 공동체를 의미한다. 즉 중생 공동체이다. 모든 존재가 다름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함께하는 것이 중생 공동체이다. 자비는 연민의 윤리를 넘어 우주의 우정이다. 자비는 모든 존재에 대한 평등심에서 출발한다.

코로나19가 종료한 이후 새로운 문명 패러다임의 등장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 그 논의의 핵심을 보면 바로 '붓다 다르마'의 실천으로 귀결된다. '붓다 다르마'라는 큰 그릇을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붓다의 지혜가 만든 크고 큰 우물의 물을 퍼내야 할 것이다. 제일 먼저 불교인 개개인은 일상생활에서부터 자비의 중생 공동체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뇌하여야 할 것이다.



지원 스님의
마음처방전

좋은 생각이 운명을 바꾼다

인생이라는 먼 길을 가려 하면 우선 짐이 가벼워야 합니다. 한평생 마음 편하게 살려면 불필요한 짐은 덜어 내야하죠. 물질적인 것은 물론이고, 생각도 가볍고 단순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 많고 생각만 복잡하면 진리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주변 환경이 단순해야 생각도 단순해집니다. 버리기는 아깝고 소유하기 짐이 되는 것은 이미 내 것이 아닙니다. 물건도 그럴진데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하지 않은 대인관계는 자신과 상대의 생각을 맑게 할 수 있습니다.

형태의 세계는 마음 세계의 그림자이므로 현실 세계가 부유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세계가 부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를 내 자신 쪽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먼저 전체를 위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소 생각을 부유하게 해야 하죠.

형편이 나쁜 사람은 나쁜 상념의 파동만을 감수해 좋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이 우주에는 무수한 전파 같은 정신의 파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파동에 감응하는가에 따라서 좋은 파동을 받느냐 나쁜 파동을 받느냐가 정해지죠.



그림 · 최주현

좋은 파동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신이 번영하고 싶다면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 세상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좋은 상념의 파장을 항상 일으키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게 되면 이 우주에 여러 가지로 충만한 상념의 파장이 다시 자신에게 끌려옵니다.

세계적 힐링 멘토 마이클 버나드 백위스는 어느 인터뷰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진동합니다. 주파수 진동입니다. 인간은 단순히 육체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이죠. 올바른 생각, 말 그리고 행동들이 진동하게 되면 삶 속에 같은 파동을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사랑이라는 감정을 갖게 되면 풍요로움, 번영, 환희의 감정을 마음에 담게 되고 그것은 삶 속에서 생성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발산의 법칙'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산의 법칙이란 물리적으로는 끌어당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깊은 곳에서 발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중심으로부터 발산하는 것이지요. 생각이란 정신적 에너지의 집합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과 현상은 나 스스로가 끌어당긴 것입니다. 결국은 내 생각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은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육지장사 회주〉

社 說

불자 국회의원 당선자에 바란다

4월 15일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이를 통해 약 30여 명의 불자 국회의원이 당선돼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인물 면면들을 보면 훌륭한 인재들이 당선인으로서 이름을 올렸다. 원내 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주 당선인은 제20대 국회 정각회 부회장을 역임한 인물이고, 10년만에 정계에 복귀한 이광재 당선인은 힘들 때마다 사찰에서 마음을 추스르는 불자이다. 김두관 당선인은 2007년 조계종 前 종정 법전 스님에게 '웅기'라는 법명을 받고 불교에 귀의했다.

미래통합당을 대표하는 불자의원은 단연 주호영 당선인이다. 제20대 국회 정각회 전반기 회장을 역임한 그는 17대부터 이번 21대까지 내리 5선을 성공했다. 서병수, 김석기, 백종헌 당선인 등도 독실한 신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비례대표에도 독실한 불자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더불어시민당 김병주 당선인은 지난해 불자대상 수상자이며, 미래한국당 조명희 당선인은 동화사신도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이들 국회의원 당선인은 5월 30일부터 4년간 제21대 국회의원 소임을 4년간 수행하게 된다. 바라는 점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달라는 것이다. 국민이 아닌 정당의 이익을 위해 서로를 혐오하고 볼썽사납게 싸우는 모습을 보이면 더 이상 국민들은 지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번 총선은 보여줬다.

나아가 조계종이 총선 전 각 정당에게 제시했던 〈사회통합과 전통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에 대해서도 귀 기울여 주길 바란다. 특히 조계종 등이 2008년부터 제정을 주장하는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입법하길 기대한다.

백만원력결집불사 1주년에 부쳐

조계종이 백만원력결집불사를 선포한 지 꼭 1년이다. 백만원력결집불사는 "100만명의 사부대중이 매일 100원의 원력을 모아 한국불교의 힘찬 내일을 열어가자"는 취지로 2019년 4월 17일 첫발을 내딛었다.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한국불교의 미래를 담보하기 위한 시도였다. 무엇보다 한국불교 중흥을 발원하는 불자들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로 모아낸다는 점에서 모연 캠페인 자체가 또 하나의 불사에 다름 아니었다.

그럼에도 처음에는 기대보다 우려가 컸다. △인도 부다가야 포교당 건립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입불(入佛) △계룡대 호국사 영외법당 건립 △불교 요양병원 건립 등 하나 같이 쉽지 않거나 대규모 불사인지라, 십시일반 모연으로는 현실화 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대부분이었다. 아무리 상징적인 수치라도 과연 100만 명이 동참할 것인지에 대한 원론적인 회의감도 적지 않았다.

그리고 1년, 우려는 불식됐다. 짧다면 짧은 기간 불자 30만 명이 동참했고 무려 110억여 원이 모연됐다.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 건립을 위한 기초 작업은 이미 시작됐으며 계룡대 영외법당 건립도 가시적 성과를 앞두고 있다.

물론 안심하거나 낙관하기엔 이르다. 어쩌면 지금부터가 시작이기 때문이다. 지난 1년간 전국 교구본사와 유수사찰들, 조직화된 불심 돈독한 재가자들은 이미 상당수가 동참했다. 무관심한 불자들을 움직이고 냉담 불자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모연 방식과 프로그램에 대한 변화도 고민해야 하며, 불교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얼마나 걸릴지 모를 기나긴 여정이지만, 백만 불자의 원력이 모이는 순간 한국불교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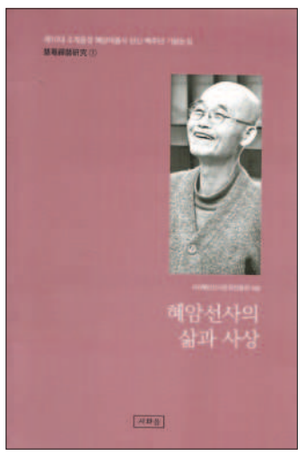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윌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단 위기서 개혁 고수한 '혜암 스님'

탄생 100주년 기념논집서 재평가

선사상과 수행법 재고찰
조사선서 직입체득 설해
임종때까지도 정진 강조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공부하다 죽어라"라는 정진의 가르침을 남긴 조계종 10대 종정 혜암 스님의 탄생 100주년 기념 논집이 발간됐다. 혜암선사문화진흥회가 펴낸 '혜암선사의 삶과 사상'에는 2014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 학술토론회에서 나온 혜암 스님의 사상과 정신에 대한 불교학자 9명의 연구 발표와 12명의 토론이 담겨 있다.

혜암 스님의 삶과 가르침을 담은 기념 논집은 선사상과 수행법, 한국 불교계 내 그의 위상 등 혜암 스님에 관한 불교 전문가들의 연구를 면밀히 살필 수 있다.

오경후 동국대 조교수는 '한국현대 불교의 동향과 혜암성관의 수행과 교화'에서 "혜암 스님은 한국근현대사의 상징적 존재 중 하나"라고 평가하며 "특히 1994년과 1998년 종단의 비법을 초래한 사태에 대한 개혁불사 당시 혜암은 온갖 회유와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청정계를 수호하여 정진하라'는 스승 인곡의 경책과 정법안장 수호를 위한 신념을 지켰다"고 설명했다. 또 오 교수는 "1947년 봉암사 결사는 그의 수행정신을 더욱 확고하게 해주었던 계기가 됐다. 발우와 옷을 바꾸고 산신각과 칠성각을 없앴던 결사는 정법을 확립해 잃어버린 한국불교 정통성을 다시 세웠다"며 "이후 '공부하다 죽어라'는 가르침으로 임종할 때까지도 후학들에게 참선을 당부했다"고 소개했다.

논문에서는 혜암 스님의 사상과 수행에 대해서도 논해졌다.

부산대 석좌교수 여연 스님은 '가야산의 대쪽, 혜암성관 대종사의 생애와 사상' 발제에서 "혜암 스님은 수행에 있어 무엇보다 체증을 강조했다. 이론이나 알음이 아니라 몸소 직접 체득해야 하며 그래야 생사에 자유로운 경계를 성취할 수 있다고 설했다"며 "이러한 돈오의 체득법으로 스님이 우선적으로 언급한 것은 실상에의 직입으로 이는 정통조사선에 입각해 있다. 철저히 조사선의 입장에서 있었다"고 평가했다.

오용석 원광대 교수도 '혜암성관의 간화선에 대한 고찰'을 통해 "혜암 스님은 중도의 정견과 돈오의 사상을 중심으로 수행의 방법과 원리를 제시했다"며 "사상과 방법을 제시할 때 스스로가 증험한 방식을 중심으로 경전과 조사어를 인용하고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집 발간과 함께 혜암선사문화진흥회는 혜암 스님 100주년 기념 사업 일환으로 9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9월 4~5일 해인사에서는 '혜암선사의 선사상과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가 열리며, 9월 16일 해인사에서 기념대법회와 유품전시회, 수행처 순례가 각각 진행된다.

한편, 혜암 성관 스님은 1946년 27세에 합천 가야산 해인사에 입산 출가했다. 그 이듬해 봉암사에서 성철 스님 등 20여 수행자들과 함께 '부처님 법대로 살자'는 봉암사 결사를 시작했다. 1993년에 성철 스님의 뒤를 이어 해인총림 제6대 방장을 지냈으며, 1994년엔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으로 추대됐다. 1999년에 조계종 제10대 종정에 올랐다. 2001년 12월 31일 해인사 원당암 미소굴에서 문도들을 모아놓고 '인과가 역연하니 참선 잘 해라'는 유훈을 남기고 열반에 들었다.

L.M.B 싱어즈 '불교명절과 재일곡' 발매

중창곡 · 피아노 반주 각각 18곡
불교명절 찬불가 등 다양한 구성
합창단 없는 사찰 교본으로 활용



성악 중창단 L.M.B 싱어즈(대표 황영선)가 찬불가 7집 음반 '불교명절과 재일곡'을 출시했다.

'중창곡(18곡)'과 '피아노 반주(MR 18곡)' 두 장의 CD로 출시된 7집은 USB(36곡)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다.

부처님의 탄생과 출가, 성도, 열반 등 부처님 일대기에서 비롯된 불교명절을 찬탄한 노래와 불보살을 찬탄한 노래, 방생법회, 칠월칠석, 우란분절, 결혼 축하곡, 천도재 및 49재에 필요한 찬불가 등이 수록됐다.

특히 이번 음반은 피아노와 합창단이 없는 사찰에서 교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황영선 대표는 "앞으로도 찬불가 창작과 함께 불자는 물론 일반 대중까지 아우를 수 있는 특별한 공연과 위대한 불교음악인을 조명하는 'Buddhist Hymm Maestro' 프로젝트 등을 꾸준히 진행할 것이다"며 "불교음악으로 대중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진정한 '가릉빈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문 성악인과 피아니스트로 구성된 L.M.B 싱어즈는 1999년 창단한 후 일반 음악회, 군대, 교도소, 병원 등에서 900여 회의 공연을 펼쳐왔다. 오페라, 교성곡, 민요, 가곡, 가요 등의 다양한 레퍼토리로 대중과 함께해온 L.M.B 싱어즈는 행원문화상과 통영 국제 음악제 프린지 라이징 스타상을 수상했으며, 해외 활동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BBS 봄맞아 '힐링 · 소통' 콘텐츠 강화

TV 봄 개편… 4월 13일부터 시행

뇌과학 · 명상강좌 접목
시청자 문자 상담 진행
뉴미디어 콘텐츠 확대

개국 30주년을 맞은 BBS불교방송(사장 이선재)이 4월 13일부터 BBS TV 채널의 봄 개편을 진행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편은 시대에 맞는 힐링 콘텐츠를 제작해 시청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TV, 라디오, 뉴미디어 등 상호 호환 가능한 원 소스 멀티 유즈의 신규 프로그램 편성을 골자로 한다. 특히 시청자들에게 심리 안정과 스트레스 완화 등 다양한 도움을 줄 수 있는 힐링 콘텐츠를 대폭 편성했다.

신규 명상 프로그램으로 대한불교진흥원에서 제작 지원한 '명상은 과학이다'는 명상 관련 최고 권위자인 뇌과학자, 심리학자, 구도자를 강연자로 초청해 명상에 대한 연구와 임상경험, 체계적인 명상법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방송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30분, 목요일 저녁 7시, 금요일 오전 11시 30분, 일요일 밤 10시이다.

법문을 통해 향기로운 삶을 영위하는 지혜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 '큰스님께 듣는 깨달음의 길'은 송담 스님, 청화 스님, 법정 스님의 주옥같은 명언을 화면에 생생하게 담아 시청자들에게 큰 가르침을 줄 것이다. 방송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30분이다.

시청자와 소통을 강화한 신규 프로그램도 편성했다. '혜거 스님의 내 삶을 바꾸는 기도'는 불자들의 고민과 간절한 소원을 문자서비스로 소통하면서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함께 기도해주는 신행 프로그램이다. 4월 20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후 5시 30분에 방송한다.

또한 뉴미디어에서 인기를 얻었던 불교콘텐츠를 BBS TV에서도 만나볼 수 있게 됐다. 신규 프로그램 '불교가 좋다'는 인기 불교콘텐츠인 '용수 스님의 행복찾기', '일묵 스님의 소참법문', '애니메이션 고승열전', '세계불교는 지금'을 TV용으로 재가공해 방송한다. 방송시간은 화요일 오후 6시 30분, 수요일 오후 1시 30분, 금요일 오전 9시, 일요일 밤 10시 30분이다.

이밖에도 불교 중도사상으로 선과 교를 회통한 성철 스님의 '백일법문', 〈천수경〉 강의와 즉문즉설의 시간을 갖는 '청운 스님의 천수천안', 우리의 문화유산 이야기 '현장탐방, 길 위의 우리역사', 아름다운 길과 풍경을 담은 '영상에세이 길' 등 마음에 힐링을 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단장해 시청자를 찾아간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코로나19 확산… 세계불교학대회 1년 연기

오는 8월 16~20일 서울대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세계불교학회(IABS) 제19회 학술대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1년 연기됐다.

세계불교학회 제19회 조직위원장인 조은수 서울대 교수는 4월 13일 공지를 통해 "학회 국제운영위원회는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과 불확실한 추이로 인해 올해 8월 서울대에서 개최하기로 했던 제19회 대회를 1년 후인 2021년 8월 16~20일에 개최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세계불교학회 사무국은 4월 11일 단체 메일 공지를 통해 △프로그램 운영 변경 △환불 정책 △호텔 예약 등 세부 상황을 공지했다.

사무국 측은 "국제보건상황을 주시하며 오는 9월 경 4차 공지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76년 창립된 세계불교학회는 유럽, 북미, 아시아의 주요 불교학자들이 참여하는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불교학 학술단체로 7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세계불교학회 학술대회는 유럽, 북미, 아시아를 순회하며 3년마다 열린다. 한국 개최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신성민 기자

흉몽을 길몽으로 바꾸며 풍요와 복덕을 얻게하는 귀한 선물
천수경(千手經) 액자
인쇄물이 아니라 한 자 한 자 정성을 들여 모필로 써서 만든 것입니다.
붉은 비단에 금색원형으로 천수경을 적어 조형미와 더불어 품격까지 느껴져
주지스님 방이나 거실, 사무실 벽에 걸어놓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천수경이란
천수경(千手經)은 관세음보살의 6번화신 중 하나인 천수천안관세음보살을 신앙하는 경전이다. 천수다라니는 특히 티벳과, 네팔, 인도, 파키스탄은 물론 중국에 걸쳐 여러가지 이본(異本)들이 있는데 그 체제와 내용에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다라니의 내용도 서로 다르게 기록되어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송되고 있는 천수경은 가범달마(伽梵達摩)역의 (천수천안관세음보살광대원만무애대비심대다라니경)을 모태로 한 것인데 우리말로 풀어쓰면 한량없는 손과 눈을 가지신 관세음보살님의 넓고 크고 걸림없는 대자비심을 간직한 큰 다라니경인데 천수다라니를 정성드려 모시거나 수지 독송하고 지키면 시방세계의 모든 불보살이 와서 증명하여 일체업장이 소멸되고 일체 악업과 중죄와 모든 장애를 여의케하며 일체의 청정한 법과 모든 공덕을 증장시키고 이롭고 안락하게 하며 모든 병과 두려움을 없애주고 일체의 귀신이 범접치 못하게 하고 모든일을 성취케하며 구하는 바를 만족케하고 특히 흉몽을 길몽으로 바꾸며 수명이 장수하고 풍요와 복덕을 얻게한다고 한다. 이와같이 천수다라니에는 온갖 공덕이 들어있어 그 대비신력과 위신력의 영험은 한없이 높고 그 신묘함은 불가사의하다고 하여 신묘장구 대다라니라 한다.
· 작품크기 : 가로 45cm × 세로 45cm
· 바닥재질 : 비단(한지로 배접)
· 구입대상 : 스님, 신도님
문의 055-291-7263, 010-3845-2446 (금액협의)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900번길 37-15호 도덕정사

종교상담사 자격 교육
귀장술비법
찾아온 (시간 · 일진)으로 왜 왔는지?
현재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내방자의 사주만 가지고 궁금증을 확실하게 예언할 수 있는
최고의 비법입니다
육임보다 쉽고 더 확실한 점술학…
(명리학을 잘 몰라도 됩니다)
제1기 종교상담학과 개설
☆ 현재 강의중 접수가능
☆ 강의일시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2시~4시
☆ 선착순 30명 접수 ☆ 강사 : 도호스님
3개월완성으로 상담 가능하며. 누구나 쉽게 배우고, 완벽한 과학적 상담이 가능합니다
수강특전 해동불교대학원 종교상담과 수료증 수여 (총장 명의)
해동불교대학원 서울 종로구 종로17번길45
문의안내 02)741-0495~6

日 최고 불교잡지 〈대법륜〉 결국 휴간

〈最古〉

87년 창간… 불교 근현대사 대변해 온 월간지

박영빈 객원기자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불교 잡지 〈대법륜(大法輪)〉지가 결국 무기한 휴간에 들어갔다. 1934년 창간되어 87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대법륜〉은 그동안 일본불교의 다양한 담론을 이끌어온 중요한 월간지다. 4월 8일 일본의 '아사히 신문' '야후뉴스' 등의 주요 언론들은 〈대법륜〉의 공지를 인용해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다.

언론에 따르면 지난 4월 6일 〈대법륜〉을 발행하는 출판사 '대법륜각'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7월 호를 기준으로 무기한 휴간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출판사측은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87년간 많은 애독자분들과 기꺼이 원고를 집필주신 스님들과 각계 학자 분들께 감사드린다. 그러나 최근 부수가 감소되고, 편집진들의 대거 교체 등 다양한 문제로 지금과 같은 월간지의 발행에 곤란이 있다"고 사정을 밝혔다.

〈대법륜〉측은 또한 창간지부터 지금까지의 디지털 아카이빙을 위해 과월호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휴간하더라도 그동안 소개되어 왔던 다양한 담론을 손쉽게 공유하고자 한다"고 전한 〈대법륜〉지는 "출판사에서도 창간호부터 보관하고 있기는 하나, 사옥의 이전이나 편집자의 메모 등으로 인해 보관본들의 손상이 심하다. 많은 독자 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4월6일 무기한 휴간 결정 밝혀
부수 감소 등 출판사 사정 요인
언론, 日 불교계 안타까움 전해

1934년 조동종의 승려이자 실업가였던 이시하라 메이 스님이 창간한 월간지 〈대법륜〉은 특정 종파에 치우치지 않고 '불교 그 자체를 소개한다'는 취지를 이어오고 있다.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내용부터 각지에 화제가 된 설법과 강의록, 초심자들을 위한 기초 교리와 인문학적 내용까지 광범위하게 게재해왔다.



최근 발간된 〈대법륜〉지. 사진출처=대법륜각

특히 일본 최대의 근대 재가불교단체인 '재가불교협회'의 경우 그 설립과 운영에 관한 논의가 해당지를 통해 의논되는 등 일본의 근현대 불교사에 굵직한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때문에 갑작스런 휴간 소식에 일본불교계는 안타까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 구독자는 "실물 출간이 어렵다면, 온라인으로라도 이을 수는 없는가"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또 다른 구독자는 "매월 배달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으로서 조금 쓸쓸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필진이었던 한 스님은 "겨우 몇 페이지인 짧은 글들이었지만, 월간 〈대법륜〉에 글을 투고해 왔다는 것은 나의 자랑"이라며 빠른 시간에 복간되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대법륜〉을 발행해 온 출판사 대법륜각 측은 "해당지는 휴간에 들어가지만, 출판사는 그대로 운영되며, 지금과 같이 다양한 불교도서를 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대법륜각은 지금까지 〈일본대장경〉 〈대일본불교전서〉 〈정법안장전강〉 등 일본불교의 중요한 고전의 재출판, 근현대 일본불교의 사상가들의 전집을 출간하는 등 일본불교계에서는 빠질 수 없는 축을 담당하고 있다.

美, 베트남 불자들 '마스크로 자비 나눔'

티우 데 사원 사부대중 제작
4월초부터 2400여개 만들어


스님과 불자들은 분업화를 통해 면마스크를 제작하고 있다. 사진출처 = 팬서콜라뉴저널

미국 플로리다주의 베트남 불자들이 마스크를 기부해 화제다. 4월 11일 지역 일간지 '펜서콜라 뉴 저널'은 베트남 불자들이 면 마스크를 제작해 지역 의료종사자들과 일반 대중에게 기부한다고 보도했다,

미국 플로리다주 북서부의 팬서콜라 지구에 소재한 티우 데 사원은 베트남 이주 불자들이 창건한 도량이다. 주지인 응웬 스님과 두 분의 비구니 스님들이 상주하며 포교에 앞서고 있다. 하지만 현재 사원은 면 마스크 생산라인으로 사용하고 있다.

티우 데 사원에선 4월 초부터 사부대중이 모여 약 2400여 개의 면 마스크를 제작했다.

프로젝트 기획자인 응웬 스님은 "코로나 19가 중국을 비롯해 아시아권에서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감염자수의 급증세가 완화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기 때문"이라며 마스크를 제작하게 된 계기를 말했다.

응웬 스님은 "대중 중 누군가는 천을 구하러 가고, 누군가가 천을 자르고, 누군가가 제봉하는 등 철저하게 분업화를 통해 제품이 완성된다. 수익을 위하지 않고 제작에 참여하는 도반 스님들과 불자들이 공덕을 쌓고 보람을 느끼면 우리는 충분하다. 면 마스크 제작은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우리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이다"고 전했다.

티우 데 사원은 전화를 통해 마스크 수량을 요청받으며, 공급상황에 따라 마스크를 배분할 예정이다. 사원측은 먼저 "가장 먼저 코로나 19의 종식을 위해 일선에서 노력하는 의료종사자들에게 먼저 배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재 객원기자

미국 기독교인 청년, 훼불로 체포

불교사원서 불상 3구 파괴
체포 당시 성경 · 망치 소지
증오범죄법 제정 여론 확산


훼손된 불상. 용의자는 거짓된 우상인 부처의 형상을 파괴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사진출처 = 고펀드미닷컴

미국 아칸소주에 소재한 불교사원에서 훼불사건이 발생해 화제다. 지난 4월 9일 지역 언론인 '프렌들리 에이티어스'와 불교전문 온라인 매체 '글로벌 부디스트 도어'는 라오스 불교 사원인 왓 라오 산티탐(Wat Lao Santitham)에서 일어난 훼불사건을 보도했다,

지난 4월 5일 아칸소주 북서부에 위치한 포트스미스 지구에서 훼불사건이 발생했고 용의자로 숀 마이클 이스라엘(21)이 현장에서 체포됐다.

그는 포트스미스 교외에 소재한 라오스계 불교 사찰인 왓 라오 산티탐 사원에 들이닥쳐, 정원의 정자에 모셔져 있단 3구의 불상을 파괴했다. 체포 당시 양손에 망치와 성경을 들고 있었으며 "거짓된 우상인 부처의 형상을 파괴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했을 뿐"이라고 거듭 진술했다.

경찰은 "당시 용의자는 고의적으로 불상을 훼손하기 위해 망치를 가지고 왔으며, 이미 체포되기 전날 불상을 파괴하려 했으나 당시 소지한 흉기가 파손돼 깨져 불상 일부만을 훼손했다. 이에 완벽한 파괴를 위해 망치를 가지고 재훼손을 시도한 것"이라고 전했다.

대니 베이커 경찰서장은 "종교적 편협으로 이런 사건이 일어나 안타깝다. 우리 포트스미스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할 수 있었다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왓 라오 산티탐 사원의 총 피해액은 약 한화 1200만원이다. 현재 훼손된 세 개의 불상을 교체하고 사원 입구부터 경내 곳곳 보안감시를 확대하기 위한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196명의 후원자가 모였으며 총 1천만원(한화)이 모금됐다. 모금에 참여한 한 시민은 "수 십 년간 매주 방문해온 평화로운 사원이 이런 끔찍한 일로 평온을 잃은 것에 불자들과 시민들의 마음에 상처받고 불안에 떨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호소했다.

용의자는 5천 달러 이상, 2만 5천 달러 이하의 재물손괴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1급 중범죄로 기소됐으며 5월 11일 재판에 회부될 예정이다. 사건을 맡은 댄 슈 검사는 아칸소주 및 미연방 차원에서 모두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용의자는 인종, 민족, 종교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목표로 폭력적인 행위를 일으켰다. 게다가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트스미스의 훼불사건을 접한 '미국-이슬람 관계 위원회'는 증오 범죄법 입법요구 의사를 밝혔다. 위원회는 종교, 인종, 민족, 성적 성향 등에 대한 차별에 의해 발생한 범죄를 연방 차원에서 재판하도록 아칸소 주 의회에 촉구했다.

왓라오 사원의 주지 스님은 "지난 30년간 사찰을 운영하며 훼불사건을 처음 겪는다. 이 사건으로 스님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평화롭게 살길 바란다"며 입법 추진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김민재 객원기자

천년고찰서 열린 바이올린 연주회

日국보 닌나지 금당서
에이키 스님 음악포교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에이키 스님. 시진출처=닌나지 공식 트위터

천년고찰의 금당 마루 위, 흰 가사 장삼을 수한 스님의 열정적인 바이올린 연주가 화제다.

4월 8일 일본의 '야후 재팬 뉴스'와 '마이도나 뉴스'는 닌나지(仁和寺)의 금당에서 열린 깜짝 연주회를 보도했다. 닌나지는 교토시 동쪽에 위치한 고찰로 888년에 창건됐다. 진언종 오무로(御室)파이 본산이자 세계문화유산이기도 한 닌나지는 창건부터 근대까지 일본의 왕족이 주지를 맡아온 유서 깊은 사찰이다. 또 교토에서 가장 늦게 벚꽃이 피기로도 유명해 봄의 명소로도 인기가 높다.

깜짝 바이올린 연주회는 이곳 닌나지의 국보 금당 마루에서 진행됐다. 열정적인 연주의 주인공은 하얀 가사장삼을 수한 오하라 에이키 스님, 곡명은 일본의 유명 바이올리니트스 하카세 타로의 '정열대륙'이었다.

닌나지 공식 트위터에 게재된 영상은 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돼 이미 조회수가 500만회를 넘어섰다. 영상을 시청한 누리꾼들은 "스님의 연주에 긴장했던 어깨가 내려갔다" "내년의 벚꽃을 보기 위해 건강을 유지 해야겠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쏟아냈다.

닌나지측은 해당 연주회에 대해 "연주자인 에이키 스님은 닌나지의 말사 중 한 곳인 헨죠인(遍照院) 주지스님으로 진언종 오무로파의 포교를 담당하는 본산 포교사중 한 명"이라고 연주자의 프로필을 간략히 전했다. 덧붙어 "에이키 스님은 실제 음대를 졸업한 전문 바이올리니스트로, 4년전부터 포교의 일환으로 연주회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연주회를 준비한 닌나지 교학부의 다케나카 스님은 "닌나지 측에서는 3월 초순부터 참배객들에게 마스크를 제공하거나, 코로나 19로 사망한 이들의 추도, 조기종식을 기원하는 기도 등 종교의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여러 있을 해왔다. 이번 연주도 그 연장선에서 준비한 이벤트"라고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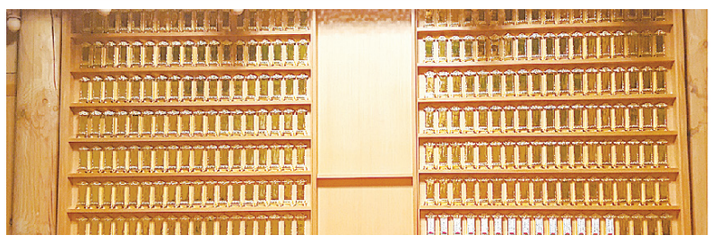
보련기획 BORYEON
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부처님오신날 도량장엄등 설치 • 유지관리

연등 자동승강장치

고정식 연등설치

천불전

인 등

위 패

법당용 연등

공단연등

아크릴한지등
부처님오신날 장엄등

사찰명인쇄 주문접수 중
전선, 전구등 공사자재

www.boryeon.com
010-5381-9355 /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



경주 황룡사 목탑지의 모습. 2만 평이 넘는 규모에 세워진 황룡사에는 70m 높이의 '랜드마크' 9층 목탑이 서 있었다. 중금당에는 거대한 장육삼존불상과 함께 19존의 불 · 보살 · 제자의 상이 있었다. 하지만 여몽전쟁으로 인해 모두 소실됐다.

戰火가 앗아간 '성스런 보물'들



이상근의
聖寶流轉
⑧ 불 타버린 불교문화재들

역사상 가장 비참했던 전쟁

어느 날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제목에 이끌려 클릭을 하게 된 사이트가 있다. '한반도 역사상 최악의 세대 TOP3' 다.

3위는 1580년대 생이었다. 10~20대 임진왜란을 겪었고 40대에는 정묘호란, 50대에는 병자호란을 겪은 세대다.

2위는 1660년대 생이다. 10대 때 경신대기근, 30대 때 을병대기근을 겪은 세대다. 당시는 사람을 잡아먹는 일이 낯설지 않은 풍경이었다고 한다. 이 시대를 살던 노인들 중에는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을 겪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차라리 전쟁 때가 나았다' 는 회고를 했을 정도다.

1위는 어떤 세대였을까? 바로 1220년대 생이다. 10대쯤 몽골의 첫 침입을 경험한 이 세대는 이후 29년 동안 총 아홉 차례의 몽골 침입을 겪은 세대다.

한국사 교과서에 여몽전쟁이라고 명명된 이 전쟁을 역사가들 역시 공히 '최악의 전쟁' 으로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기간도 무려 29년이었지만 전개 과정도 어처구니가 없었고, 그 피해도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그리고 한국전쟁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다.

몽골과 강화에 나서면 자신들의 정권이 무너질 걸 걱정한 무인정권(당시는 최충헌의 아들 최이가 무인정권 최고실력자였다)은 왕을 데리고 부리나케 강화도로 피난했다. 왕보다 먼저 강화도에 도착한 것은 최이의 재산을 실은 수레 100대였다. 전쟁이 나서 왕들이 피난을 간 경우는 우리 역사에 흔한 일이었으니 그러려니 하지만 무인정권은 강화도에 들어가서도 사태를 수습할 생각은 아예 없었다. 사태가 수습되는 순간 권력은 자신들의 손을 떠난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백성은 안중에 없었고 오직 '권력' 이었다. 기껏 내린 지시라는 게 '알아서 피해있으라' 는 것이었다.

백성들은 정말 '알아서' 피했다. 지금도 설악산 주봉인 대청봉 근처에는 천연의 암벽 요새지가 있는데 이곳이 바로 몽골 침입 당시 백성들이 쌓았다는 권금성이다. 권(權)씨와 김(金)씨가 쌓았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13세기 전반에 활동한 석익장(釋益莊)의 〈낙산사기(洛山寺記)〉를 인용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그 유래가 분명히 밝혀져 있다.

싸움을 걸어도 아예 반응하지 않고 섬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하니 몽골군은 전쟁이 아니라 유린을 했다. 도성인 개경 근처는 물론 저 남쪽 경주나 대구도 모두 쓸어버렸다. 그러다가 또 지치면 우리 백성을 동원해 농사까지 지으며 섬에서 왕과 최이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 이게 무슨 '전쟁' 인지 의아하기만 하다.

여하튼 전쟁은 1259년 무인들 사이의 내분으로 무오정변이 일어나면서 최이 정권이 무너지고 몽골과의 강화 조약이 체결돼 왕이 개경으로 돌아오면서 막을 내린다. 이후 역사책에 항쟁으로 대서특필된 삼별초는 사실 무인정권의 사병 무리였다. 군사정권 시절 이들의 항쟁은 치켜세운 역사기록이 횡행했는데 지금 삼별초를 '민족의식의 발로' 라고 이야기하는 역사학자는 찾아보기 힘들다.

29년의 전쟁으로 무엇보다 백성들의 피해가 컸지만 불교계 그리고 문화재의 수난 역시 만만치 않았다.

1차 침입 때는 지난 연재에 언급했던 흥왕사가 불탔으며, 2차 침입 때는 대구 부인사에 보관되어 있던 초조대장경이 소실되고 말았다. 3차 침입 때는 경주에 있던 황룡사가 소실되었는데 9층 목탑이 불타고 대종은 사라지고 말았다.

전소된 9층 목탑, 장육상 그리고 사라진 종

규모로 따지자면 신라 최대 규모의 사찰은 불국사였다. 하지만 신라인들이 황룡사에 가진 자부심은 남달랐을 것이다. 도성과 멀리 않은 곳 평지에 2만 평이 넘는 규모에 세워진 황룡사에는 70m 높이의 '랜드마크' 황룡사 9층 목탑이 서 있었다. 중금당에는 거대한 장육삼존불상과 함께 19존의 불 · 보살 · 제자의 상이 있었다. 법당에는 솔거가 그린 늙은 소나무 그림이 있었는데 어찌나 사실적이었는지 새들이 날아와 앉으려다 벽에

역사상 최악의 전쟁 '여몽전쟁'
몽고군 29년간 한반도 유린해
황룡사 9층목탑, 장육상 소실
숲 소재 황룡사 대종도 사라져
'이동 중 동해에 빠졌다' 구전돼

부딪쳐 죽는 일까지 있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다. 얼마나 화려했을까. 하지만 1238년 몽골의 3차 침입 때 모두 불타 없어지고 만다.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목탑에 대한 기록은 고구려에 가장 많이 남아 있다. 학자들은 고구려 때 세운 청암리사지 목탑은 60m, 정릉사지 목탑은 40m로 추정하고 있다. 만만치 않은 높이다. 반면 석탑을 만드는 기술은 황룡사 창건이 있던 진흥왕 30년 전후(569) 당시까지만 해도 백제가 가장 뛰어났던 것으로 미술사학자들은 추정하고 있다. 실제 황룡사 9층 목탑 건립을 주도한 사람도 백제의 기술자 아비지였다.

그런데 황룡사 9층 목탑은 밖에서 보기만 하는 구조가 아니었다. 직접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었으며 그 안에서 예경이나 참배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런 연유로 항상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고려사〉 기록에는 정종 4년(949년), 헌종 원년(1094년) 각각 황룡사 목탑 화재에 대한 기록이 있다. 하지만 전소에 대한 기록이 없던 걸로 봐서는 부분적인 피해만 입고 진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하튼 황룡사는 몽골의 침입으로 활활 타올라 이제는 터만 남아 있다. 그런데 불타 없어진 유물 말고 '사라진' 유물이 하나 있다. 바로 황룡사 대종이다. 금으로 만들어졌다는 이 대종은 성덕대왕신종보다 몇 배는 더 컸을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몽골 군대는 이 대종을 감포 앞바다를 통해 배에 싣고 어디로 가져가려고 했던 모양이다.

토함산 자락이 끝나는 곳에서부터 시작해 감은사 앞을 거쳐 동해로 이어지는 길목에 '대종천(大鍾川)' 이라는 이름이 붙은 물길이 있는데, 몽골 군대가 토함산에서 굴린 이 종을 대종천을 이용해 동해로 빼내려다가 그만 종을 빠뜨렸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몇십 년 전만 해도 근방에 사는 사람들 중에 파도가 심하게 치면 종소리가 난다는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역사적 사실과 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실제 몇 차례 발굴 시도도 있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아직도 황룡사 대종은 동해바다 어디쯤 가라앉아 있을지 모른다.

세계서 두 번째로 간행된 한역대장경

초조대장경은 중국 북송(北宋)의 관판 대장경(官版大藏經, 971~983)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간행한 한역(漢譯) 대장경이다. 몽골에 의해 불타기 전 부인사 장경각에 있었던 목판은 재조대장경(팔만대장경)의 두 배가 됐을 것으로 추정한다. 권수로는 1만 권이 넘었을 것이다. 사서에 등장하는 숫자만 신뢰한다면 6천 권 안팎이다.

초조대장경은 물론 공식적으로는 '거란의 침입을 물리칠 목적' 으로 판각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저간의 사정을 보면 그 이전부터 대장경 간행을 위한 꾸준한 작업이 있었던 것 같다. 〈고려사〉에는 경전 수집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했던 흔적이 곳곳에 보인다. 물론 이 중심에 문종의 아들이자 순종, 선종, 숙종의 친동생인 대각국사 의천이 있었다. 초조대장경은 그가 초대 주지로 있던 개경의 흥왕사에서 기획되고 처음 추진되었다.

그런데 초조대장경은 학자에 따라 착수 시기와 완성 시기를 각기 다르게 추정하고 있다. 1011년에 시작하여 1087년까지 77년이 걸려 새겼다는 설이 있고, 1019년에서 1087년까지 69년 동안과 1011년에서 1051년까지 41년이 걸려 완성했다는 설이 있다. 대체로 〈고려사〉 기록에 '대장경 완성을 축하하다' 는 기록을 따라 추정하는데, 사실 '대장경' 이라는 칭호가 꼭 초조대장경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는 게 현재 학계의 대체적인 결론이다. 게다가 초조대장경은 정황을 보자면 사실 '완성' 이라는 말이 적절하지가 않다.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경전을 수집해 새로 새기는 작업이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여하튼 1232년 몽골의 2차 침략으로 부인사에 옮겨져 있던 초조대장경은 모두 소실됐다. 다만 일본의 남선사에 꽤 많은 분량의 인경본이 남아 있어 현재까지도 한창 연구 중에 있다.

물론 몽골 침입 당시에는 황룡사, 부인사 외에도 더 많은 사찰이나 유물이 한 점 불꽃이 되어 사라졌을 것이다. 어차피 남아 있었다 해도 임진왜란, 병자호란, 한국전쟁 같은 전란을 피해가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다. 물론 그랬을 것이다.

전쟁이나 정치적 격변으로 사라진 유물을 짚어볼 때마다 나라의 운명이 곧 유물의 운명인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다.

〈불광출판사 편집주간〉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법당 전선시공 전문
승하강 장치시공(신형)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등간격 : 규격참조



설치가 편리한 고리형 후크



LED전구 국산인증 (서울반도체 정품)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백색 연분홍 금색

제등행렬용품



일자A형 S형 T분리형 LED바A형 LED홀더B형 건전지 초

전선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법당용 12E 외곽용 26E ISO9001 ISO1400 연등승하강 장치기술(신형)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본사 · 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北 코로나 어려움, 南 종교인 보듬자



변택주의
다시 읽는 法頂 스님
⑧ 법정 스님 평화관



법정 스님의 유골을 모신 길상사의 '법정 스님 유골 모신 곳'. 현대불교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태전, 4월 27일 처음 만났다. 두 사람이 손잡고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녘으로 건너갔다가 돌아올 때 가슴 벅차오르던 기억이 생생하다. 같은 해 9월, 15만 평양시민 앞에 선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더는 전쟁은 없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오천년을 함께 살고 칠십 년을 헤어져 살았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칠십 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라고 외쳤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맘때면 개성공단은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옥신각신하다가 다시 얼어붙은 남북미. 평화로 가는 길이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새기고 있다. 풀리는 줄 알았던 남북관계가 다시 엉킨 일은 이번만이 아니다.

현대 종교와 정치가 할 일은
무엇보다도 사랑을 심는 일이다

1989년 법정 스님은 "지난 연초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이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왔을 때 곧 통일이라도 될 듯이 정부고 민간이고 할 것 없이 온 나라가 한동안 술렁거렸다. 성급한 사람들은 올가을쯤은 금강산으로 단풍 구경이라도 가게 될 듯이 들뜨기까지 했다. 그 뒤 소식은 어떤가? 문익환 목사와 소설가 황석영 씨가 불쑥 평양을 방문했을 때도 나라 안이 온통 떠들썩했다. 그러나 문 목사는 구속 중이고, 황씨는 제3국으로 나가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모스크바나 북경 또는 여타 공산권 나라를 다녀오면 개선장군처럼 인정받고 또한 그렇게 처신하는데, 막상 한 겨레가 같은 언어와 문자와 풍습을 지니고 살아가는 평양에 다녀오면 감옥에 들어가야 하는 불행한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라며 안타까워했다.

1971년에는 허리가 잘린 한반도에서 종교인이 먼산바라기 해서는 안 된다고도 말씀했다.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사실상 전쟁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 현실을 돌아볼 때 불안한 그림자는 이 구석 저 구석에 도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종교인이 청산백운이나 바라보며 초연하려 한다면 그런 종교는 없는 것만도 못할 것이다. 일체중생이 부딪치는 문제는 곧 종교의 과제이다. 그러므로 평화 염원은 오늘날 종교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다."

틈날 때마다 "부처님 제자로서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1계로서 살생 금지를 받들며 살아왔다는 것은 큰 행운이 아닐 수 없다. 그런 계율을 몰랐다면 얼마나 많은 허물을 지었겠는가"라고 돌아보던 스승은 우리나라 군대가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여 불교계가 참전군인 무운장구를 비는 기도를 했을 때 이렇게 드잡이한다.

"전국 사원에서는 조석으로 한 시간씩 월남 전선에 가 있는 장병들을 위해 '사기왕성, 임전무퇴, 연일전첩, 국위선양…' 하라는 기도를 하라고 총무원 당국은 지시했다. 이것은 적어도 불교도들이 해야 할 축원은 아니다. '한시바삐 싸움을 그쳐 더는 피를 흘리지 말고 온 누리가 평화롭게 살아지이다' 하는 염원이 앞서야 할 텐데, 그저 무운이 장구하라니 무슨 망령된 말인가. 사원은 지혜와 자비를 기르는 도량이며, 불자들은 수도에서 얻은 지혜와 자비로 일체중생을 평등하게 구제하라는 것이지, 같은 인간끼리 피를 찾는 싸움에 부채질하라는 것은 아니다."

이 글 때문에 승적에서 쫓겨날 뻔하기도 했던 스승은 "석가모니 가르침은 평화가 무엇인가를 보여준 그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인류 역사에 사라질 수 없는 커다란 자취를 남겼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불교가 실천 윤리를 바탕으로 삼고 있는 것은 자비다. 초기 교단에서는 국가권력에 전쟁을 포기하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한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릴 수 없다. 원한을 쉬어버림으로써 풀린다' 고 했다. 마가다 임금 아자타삿투가 이웃 밧지국을 쳐들어가려고 의견을 물었을 때, 부처님은 무익한 전쟁을 막아서면서 이렇게 말했다. '정치란 죽이지 않고 해치지 않으며, 이기지 않고 적에게 이기도록 하지도 않으며, 슬프게 하지 않고 법답게 다스려야 한다.' 그리고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맞서 싸우기보다는 온갖 방편과 지혜로써 화평하라고 했다"란 말씀도 남긴다.

법정 스님, 평화운동 강조
자비, 평화 실천윤리 제시
북한과의 협력의지 재확인

또 〈말과 침묵〉에서는 〈대살차니건지소설경〉에 나오는 ① 적이 지닌 군사력이 우리와 맞먹는지 나은지를 살펴 "힘이 엇비슷"하다면 '전쟁으로 서로 피해를 볼 테니 이로움이 없다. 만약 적이 더 뛰어나다면 적은 살아남고 이쪽은 멸망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적국 임금과 가까운 사람이나 어진 이에게 다리를 놓도록 해 화해하고 전투를 멈춰야 한다. ② "우리 힘이 뛰어날 때"는, 맞서 싸우지 말고 저쪽이 하는 요구를 들어주고 전투를 멈춰야 한다. ③ "적이 우리보다 뛰어날 때"는, 술책을 써서 이쪽과 싸우기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줘, 적이 두려움을 갖고 전투를 그만두도록 해야 한다는 보기를 들면서 '정의로운 통치자란 평화와 자유를 사랑하는 이' 라고 한다. 놀라운 것은 "우리 힘이 셀 때 저쪽 요구를 들어주고 전투를 멈추라"는 말씀이다.

스승은 베트남 전쟁이 끝나자 이런 말씀도 했다.

"12년 동안이나 끌어오던 그 추악한 전쟁이 막을 내렸다. 전쟁으로 희생된 사람 목숨과 파괴된 질서며 불타버린 재산은 그 어떤 재난에서 입은 피해보다도 가공할만했다. 그토록 처참하고 추악한 싸움에서 남는 것은 상처 입은 인간이다. 우리는 이 시대와 장소에서 함께 살고 있는 형제들이다. 같은 나무에 열린 열매들이다. 우리가 같은 시대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인연 농도가 짙어서다. 그 중에도 같은 지역에 살게 된 것은, 불교 표현을 빌린다면 몇 생의 인연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좋으나 궂으나 공동 운명체라는 멍에를 함께 메고 있다. 우중충한 거리에서 서로가 눈치를 살피면서 떨고 있는 것은 바깥 기온이 낮아서가 아니다. 이웃 사랑이 아쉬워서다. 그 체온이 식어가기 때문이다. 현대 종교가 할 일은, 그리고 정치가 할 일은 무엇보다도 사랑을 심는 일이다. 그 길을 지나서 이해와 신뢰와 협력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이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임진왜란 7년을 괴롭히고 35년 동안 우리를 짓밟아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나라 일본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나라다. 2018년에는 750만이 넘는 사람이 찾고, 두 나라 사이가 나빴던 2019년에도 550만이 넘는 사람이 찾았다. 그런데 피를 나눈 남과 북은 사람이 오고 가지 못한다.

1982년 스승은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이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요한 첫째 편지 4장 20절' 말씀을 들어 우리를 일깨운다. 1985년에는 "남북한 최고책임자들이 크고 작은 일에 구애 말고 한 달에 한 번쯤 서울이나 평양에서 회식하면서, 나라와 겨레 재결합을 진지하게 의논한다면 우리 상황은 단박 부드러워질 것이다. 이제는 우리네 통치에도 시(詩)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우리 못지않게 지독한 외침을 겪은 베트남은 중세와 근대에 송, 원, 명, 청을 차례로 물리쳤으며, 근현대에는 프랑스, 일본, 미국, 캄보디아, 중국과 큰 전쟁을 여섯 번이나 치렀지만 끝내 물리친다. 이길 수 없는 상대를 이긴 베트남은 패색이 짙은 상대가 패배를 받아들이고 물러서면 전쟁 끝을 보려고 쫓아가서 죽이며 약탈을 일삼지 않고 화해 손길을 내밀었다.

천 년이나 중국에 지배받다가 938년 독립한 베트남은 그 뒤로도 중국이 자주 쳐들어와 시달리지만 물리친다. 그때마다 물러가는 적군에게 물과 양식, 특산물을 주어 보내고 어떤 때는 배 500척을 내어주기도 한다. 20세기 일본과 프랑스 공동지배를 받다가 프랑스가 밀려나게 되자 쫓겨가는 프랑스인들을 나서서 도왔다.

'나라를 지키려고 어쩔 수 없이 치를 뿐인 전쟁' 이었으니 물러가겠다고 하면 서둘러 길을 터주며 이웃으로 어울려 살아갈 뒷일을 떠올렸다는 얘기다.

국방력이 세계 6위인 우리나라와 25위인 북한, 누가 누구를 아울러야 할까.

생각이 다르더라도 미워하지 않겠다
우리는 협력해 나라를 구해야 할 처지

코로나 19로 벼랑 끝에 내몰린 나라 사람들을 어떻게 살려야 할지를 놓고 입씨름이 한창이다. 나랏돈을 통 크게 풀지 않고는 숨통이 트이지 않을 것이라는 이들과 우리 나랏빚이 적지 않은데 뒷감당을 어찌하려느냐는 이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정부 예산에서 10%에 이르는 돈이 국방비로 나가는 우리나라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다섯 해 동안 쓸 국방비가 무려 270조 7천억 원이나 된다. 2017년 우리 국방비가 40조 3천억 원일 때 북한도 10조 원이나 썼단다. 2018년 북한 국민총소득(GNI, 명목)이 35조 8,950억 원이다. 남한 1,898조 4,527억 원에 견주면 35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북한이 코로나19 사태로 겪는 어려움은 끔찍할 것이다.

총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지난 4월 4일 "생각이 다르더라도 미워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우리(여야)는 협력해서 나라를 구해야 할 처지"라고 했다. 좋은 말씀이다. 어려움을 넘어서는데 여야가 다를 수 없으며 남북이 다를 수 없다. 그 마음으로 남북이 머리 맞대고 국방비를 반은 줄여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남북 사람 살림살이를 아우르면서 "칠십 년 적대를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는 큰 걸음"을 내디딘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참에 유엔을 설득해 개성공단에서 방호복과 마스크를 만들어 미국 사람들이 코로나19로 겪는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남북이 힘을 보태겠다고 나서면 더 좋으련만.

〈법정 스님 눈길〉 저자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상담(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라이브 방송
페이스북 | 매주 수요일 밤 10-11시

부처님의 마음을 빗는 불상 불단 조성 전문업체
한국불상조성원
상담문의 010-3665-6696

정성과 신뢰로 짓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에서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전통불상제작 방법을 전수받아 한국 불상의 전통과 맥을 이어가고 색바램없이 영구적으로 모실 수 있는 기술적 자질을 보유하여 다양한 불상을 조성하며 전통적인 표현양식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상판매 뿐만 아니라 사찰에 관한 모든 필요한 것을 일체 컨설팅과 자문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 대표 이 인 규 합장

불단, 수미단 | 닫집, 운각 | 특수불, 동불, 목불 | 단청개금, 순금개금 | 도금, FRP, 수지
소불, 대불, 모든 탱화 | 위패제작 | 건 축 | 맞춤 조성 가능 | 사찰 관련 컨설팅 및 자문

TEL 031-536-6696 | FAX 0504-398-6696

선종, 하층민에서 사대부로 이동



현견 스님의
중국 선 문화기행 Ⅱ
⑧ 선종 오대 · 송대 사회에 미친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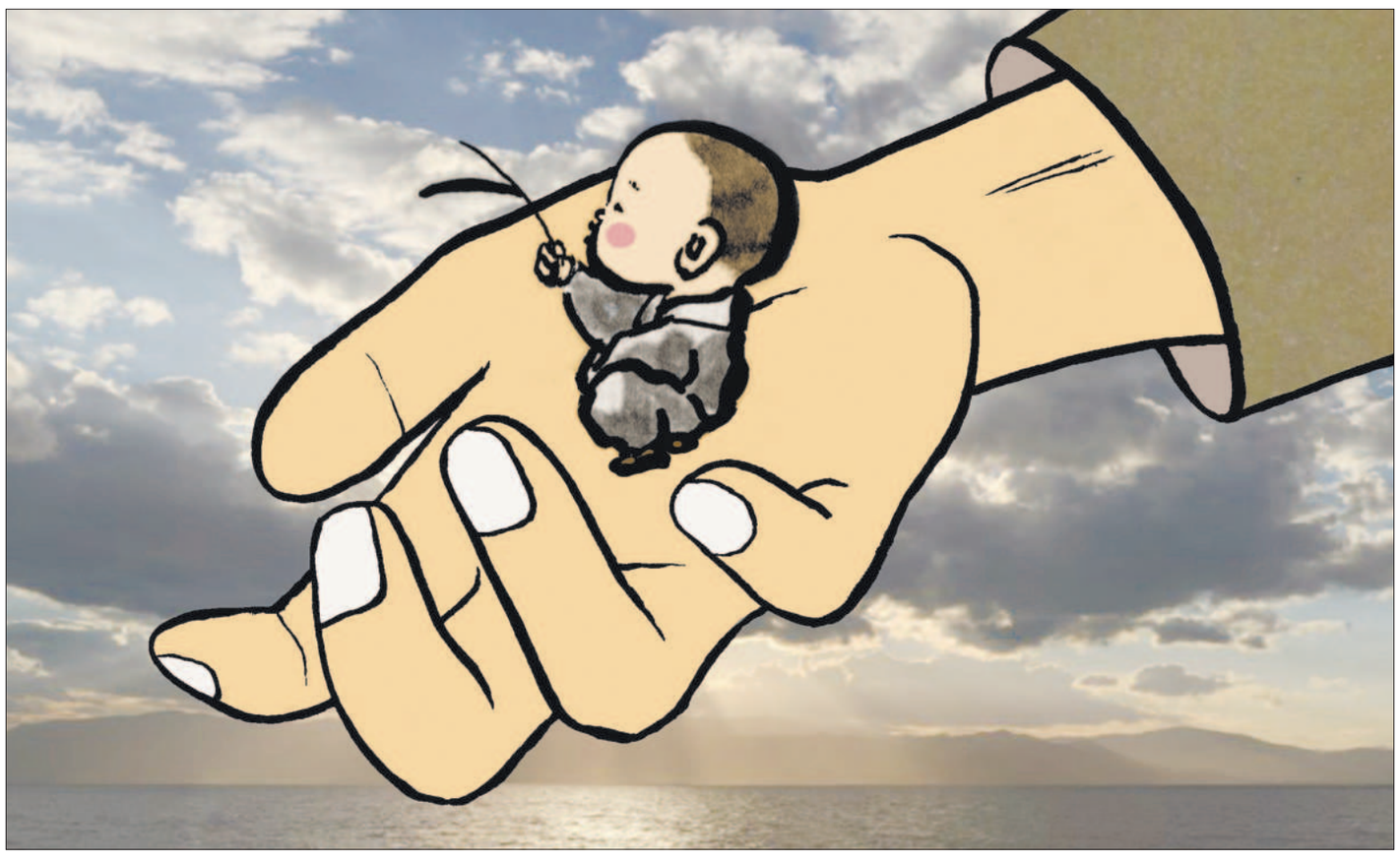


그림 · 강병호

양송(兩宋)에서 선종이 발전할 수 있었던 사회적인 요인은 사대부들이 보편적으로 선을 좋아했던 시대적 상황이다. 사대부들이 선을 좋아하기 시작한 것은 당나라 초에 시작되었지만, 당나라 중엽에 이르러서 성황을 이루기 시작했다. 이들의 이러한 사상적 흐름의 정서는 선종 발전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큰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풍토는 오대 및 송대에도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

선종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오대십국시대는 당나라의 화려하고 찬란했던 선학의 황금시대가 막을 내릴 때쯤에 서서히 그 서막이 열렸던 시기의 반세기 즉 50여 년의 짧은 기간을 말한다. 이 때는 지방의 군웅들이 막후 실력을 겨루면서 할거하던 시기로서 매우 불안정한 시대였다. 이때 불교의 각 종파는 이미 쇄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다만 선종만은 여전히 지속적인 발전을 이어가고 있었다. 중국 8대 종파 가운데 선종의 성립은 비교적 늦은 편이지만, 선종을 창시한 역대 조사들은 마음속으로 제종파를 초월하고 싶은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었으며, 아울러 선종은 제종파를 비평하는 태도를 가지고 선종을 전파하기에 이르렀다. 당말 오대에 이르러서 선종은 대부분 남종선이 주류가 되었다.

오대불교는(907~959) 대략적으로 50여 년 동안을 가리킨다. 이 기간 동안에 후량(后梁) 후당(后唐) 후진(后晉) 후한(后漢) 후주(后周) 등 5개 시대의 불교를 말한다. 이 시기의 중국은 또 남북으로 분열되어 북방은 5대로 교체되었고, 남방은 남오(南吳) 남당(南唐) 오월(吳越) 남촉(南楚) 전촉(前蜀) 후촉(后蜀) 남한(南汉) 남평(南平, 荊南) 민국(闽国) 북한(北汉) 등 십국으로 분열되었다. 북방의 혼란한 정세로 인해서 사회질서는 파괴되고, 따라서 조정은 불교에 대해서도 엄격한 제한 정책을 폈다. 상대적으로 남방의 각국은 비교적 안정된 상태로서 제왕들도 불교를 열심히 믿거나 외호를 하였다. 반대로 북방은 겨우겨우 불교를 유지해가는 반면에, 남방은 지속적인 발전을 이어가고 있었다.

오대시기로 접어들면서 중국 선종은 이미 점점 퇴락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전국에서 유행하고 있었다. 당말 중국 북방에서는 위주(魏州 · 지금의 하남성 안양시)에서 임제종 선사인 흥화존장(興化存獎 · 830~925) 계통의 활동이 비교적 영향이 컸다. 흥화존장이 자주 사용했던 봉(棒)과 할(喝) 형식의 선법을 시작으로 그의 제자들은 여주풍혈산(汝州風穴山)을 전법의 거점으로 삼았다. 그 후 계속해서 송나라 초까지 여주는 여전히 임제종의 근거지가 되었다. 조동종의 조산본적(曹山本寂 · 840~901) 계통은 매우 안정적으로 발전해가고 있는 것 이외에, 운거도응(雲居道膺 · 835~902) 계통도 여전히 강남의 운거산에서 크게 선법을 전파하고 있었으며, 화엄휴정(華嚴休靜) 및 그의 제자들은 낙경(洛京) 일대에서 동산양개(洞山良价 · 807~869) 선법을 전승하고 있었다. 이 때에 설봉의존(雪峰義存 · 822~908)은 복건성 일대를 거점으로 발전해 가고 있었다. 그의 문하에 운문문언(雲門文偃 · 864~949)은 "건곤을 포용해서 덮고(函蓋乾坤), 스스로 미세한 것조차 없애고(自機銖兩), 외연을 관계하지 않는다(不涉外緣)."는 삼구로서 대중들을 인도하면서 운문종을 창립했다. 또 다른 제자인 법안문익(法眼文益)은 화엄사상 및 천태사상의 이론을 융화해서 법안종을 창립했다. 여기에 이르러서 선종은 이미 몇 개의 파벌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선종만이 지속적인 발전
당말 오대 남종선이 주류
대혜종고가 '간화선' 제창
선종, 중국불교 흐름 주도

오대의 각 종파는 각지에서 할거하는 군웅들의 세력의 지지를 받았는데, 후당의 장종(庄宗)의 예경을 받은 흥화존장, 남당의 이승(李昇)의 신봉을 받은 법안문익, 초왕 마은(馬殷)으로부터 존중을 받은 석문헌온(石門獻蘊), 오월왕 전류(錢鏐)가 온 마음으로 공경했던 경청도부(鏡淸道符), 전유의 아들인 전숙(錢俶)으로부터 중시를 받았던 천태덕소(天台德昭), 민왕(閩王)인 왕심지(王審知)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은 설봉의존(雪峰義存) 및 현사사비, 남한왕(南漢王)인 류은(劉隱)으로부터 공양을 받았던 영수민철(靈樹敏鐵) 등이 있다. 선종은 이러한 많은 군웅들의 지지 및 각각 선사들의 노력이 더해져서 비로소 지속적인 발전을 이어갔다.

송나라는 문치를 표방해서 문인들에 대한 대우가 최고조에 달했고, 문인들 역시 문자 유희 내지 향유를 맘껏 누리기도 했다. 이러한 독특한 배경하에서 문자선이 발전하고 형성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반면 문자선의 유희에 빠져서 실천수행을 등한시 하는 풍조를 목격한 대혜종고가 간화선을 제창한 것도 역시 지극히 자연스러운 시대적 요구와 상황에 부응한 것이다. 동시에 송나라 사대부들의 선법에 대한 관심과 행동은 많은 유학자들을 선종으로 끌어 들이기 시작했고, 선종의 심성이론은 송명이학에 깊은 영향 주기도 했다. 명나라의 어떤 사람은 "송유(宋儒)의 배움은 모두 선에 입문하는 것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도 했다. 때문에 선종의 선기(禪機) 참선(參禪) 등은 한때 송대의 문인들 사이에서 하나의 풍조가 되기도 했다.

〈중국선종통사〉에서 송대 사대부와 선종의 연관관계를 두 가지로 집약해서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는 선종을 통한 불교의 철학세계관 심성수양관(心性修養觀), 통속적인 어록의 표현 방법 등이 신유학에 풍부한 사상적 자료를 제공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두 번째로는 선종을 통해서 심리적 평행 및 안정감을 얻었고, 때로는 총림을 도피처로 삼고 실의에 빠진 사람들의 정신적 안식처가 되기도 했다. 양송 사대부들은 잦은 외세 침입으로 인한 사회적인 불안감 등 극심한 피로감을 선종에서 위안을 받았고, 동시에 선종에서 그 활로를 찾기도 했다. 이러한 현상은 아마도 시대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송대 선종이 당시 사회에 끼친 영향이 이전과 다른 점은 사대부 계층 인사들에게 준 영향이다. 본래 선종은 하층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지만, 송대로 접어들면서 상황이 역전 된 것이다. 즉 사대부들에게 광범위하게 유행을 하게 된 것이다. 그 근거로 담선 참선 및 공안어록에 대한 음미, 선문답에 대한 풍조 등은 이들을 충분히 매료시켰을 뿐만 아니라, 선종을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 선종은 송대에 이르러서 문자선, 간화선 묵조선 등을 탄생시키기도 했다. 원대에 이르러서는 원나라가 티베트 불교를 믿으면서 선종은 한쪽으로 물러나게 되었다. 하지만 원대의 북방 선종은 조동종의 만송행수를 필두로 번창을 하였고, 상대적으로 임제종은 남방에서 유행을 하였다. 물론 북방에서 임제의 활동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저 미미했을 뿐이다.

양송은 비록 유교사상을 숭배했지만 선종도 비교적 흥성했던 시기이다. 선종은 사상적으로 삼교융화의 특징을 바탕으로 선교일치 선정일치(禪淨一致) 삼교일치(三敎一致) 등을 주장하면서 중국불교의 새로운 흐름을 주도했다. 이러한 흐름을 최초로 주도한 인물은 법안종의 영명연수선사이다. 이때 위앙종은 이미 쇄락할대로 쇄락해서 다시는 전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임제종은 북방에서 남방으로 그 선법을 넓혀가기 시작 하고 있었으며, 아울러 임제종은 강서를 중심으로 선문 중에서 가장 활발한 하나의 문파가 되었다.

그 후 선종은 중국의 각 방면에 많은 영향을 남기게 되는데, 먼저 종교방면에서 보면 중국에는 옛날부터 다양한 종교가 존재하고 있었다. 중국인들의 전통종교는 제사(祭祖), 경천(敬天: 하늘에 제사지내는 것 · 天命思想)과 도교가 있었다. 하지만 중국에 불교가 유입되면서 불교만큼 전 중국인들에게 영향을 미친 종교는 없었다. 그러다 보니 도교는 선종의 총림제도를 모사해서 도교의 총림과 청규제도를 모방하기도 했다. 곧 〈도문십규(道門十規)〉에 보면 "근세에 선으로서 성종을 삼고, 도로서 명종을 삼는다.(近世以禪爲性宗, 道爲命宗)"고 하고 있다.

사상적 측면에서 보면, 선종에서 주장하는 자성과 즉심즉불(卽心卽佛) 사상은 송명이학(理學)에 원천이 된다고 한다. 예를 들면 주희(朱熹), 왕양명(王陽明) 등은 모두 선종을 통해서 영감을 얻어서 본인들의 사상적 체계를 수립하기도 했다. 특히 주희는 늘 〈대해어록〉을 끼고 다녔다고도 한다. 이외도 주희의 '이기론(理氣論)'은 불교의 방법론은 묘사하였다고도 하며, 또 그의 '이일분수(理一分殊)'는 그냥 화엄사상을 옮겨놓은 것 같다. 그는 또 말하기를 "지금은 禪者가 되지 않으면, 저 깊은 곳에 일찍이 이르지 못하고, 비로소 깊은 곳에 이르러야 바로 禪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 왕양명은 명대의 인물이다. 역시 〈단경〉에서 주장하는 '본성시불, 리성무별불(本性是佛, 離性無別佛)'에서 영감을 얻어서 '양지(良知)'라는 사상적 개념을 창출하기도 했다. 즉 "양지(良知)는 다만 천지자연의 명각(明覺)을 발견하는 것이며, 오직 하나의 진실하고 성실한 연민지심을 갖는 것으로, 문득 이것이 본체가 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심외무물, 심외무리, 심외무사(心外無物, 心外無理, 心外無事)는 글자만 바꾼 그의 심학 개념이다. 그의 '사구게'도 매우 유명한데 유식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내용이다. 이외도 도교에서도 선종을 통해서 많은 영감을 얻어서 비슷하거나 아니면 아예 글자만 바꾸어서 사용하기도 하였다. 명대 이후는 선을 논하면 도교를 함께 논하였으며, 곧 사회에서 이미 선과 도를 묶어서 이야기 하는 것이 하나의 유행이 되기도 했다.

〈동국대 강사〉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본사의 염불전문시스템이 어느?

경지에 올랐고 일반시설과의 수준 차이가 어느정도인지 시설전 반드시! 비교 확인하셔서 평생 수 천번 사용하는 염불시설의 실패를 면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자는 소리의 명인으로 염불소리의 교정 발전 및 전화상담 환영

본품은 본사의 염불전문 개발품으로 시중에 없음! 있을시는 일천만원 포상 지금 이 글은 법적증서!

장점 : (1) 앰프다루기 1초! 간결한 제품은 고장이 없음
(2) 방문시 설악 신흥사 및 토굴까지 2천여 사찰 시설명단 제공에서 확인!

USB겸용 앰프1, 스피커 2개, LG오디오 1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스탠드 포함)완벽시설, 290만원, 스피커 계속 연결시 비용추가 (방생용, 각종 마이크 구경)

▣ 마이크소리 구경 조건으로 신청 : 055-343-1191, 010-9471-2026, 010-7740-2026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NK Sound NK사운드 대표 박 공 희

만개한 버다웃꽃과 물로 행복 기원



최재희의
비긴어게인 미얀마

⑧ 미얀마 띤잔 축제

나라마다 새해 명절에 대한 풍습은 다르겠지만, '변화에 대한 설렘 · 즐거움 · 덕담' 은 모두에게 공통적인 분모이다. 미얀마 새해에 대해 미얀마 사람들에게 처음 들었을 때는 다소 충격적이었다. 물을 서로에게 뿌리며 서로의 행운을 빌어준다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대방에게 물을 뿌리는 일은 굉장히 무례한 일이며 아침 막장 드라마에서만 볼 수 있는 광경이다. 처음에는 다소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미얀마에 직접 살면서 겪어보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미얀마의 새해 명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날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미얀마 새해에 물 뿌리는 이유

우리나라에는 각기 날씨가 다른 4계절이 있지만, 미얀마는 '여름, 우기, 겨울' 3개의 계절이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여름 3단계 버전으로 '여름(건기), 여름(우기), 여름(건기 · 조금 덜 더움)' 이다. 미얀마에서 제일 더운 시기는 미얀마 새해의 시작인 띤잔(Thingyan) 시작 전이다. 가장 무더울 때 띤잔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물을 뿌리고 맞는데 전혀 거부감이 없다. 오히려 무더운 더위를 날려주는 역할을 한다. 올해는 윤년(閏年)이기 때문에 띤잔이 총 5일(4월12~16일)이지만 보통은 4일(4월13~16)동안 진행된다.

미얀마의 새해 명절인 띤잔은 집 앞에 물 호스와 대야만 준비하면 끝이다. 가족끼리 새해를 맞이해서 서로에게 물을 뿌리기도 하고,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을 뿌린다. 혹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무대를 설치한다. 무대 위에서 뿌려지는 시원한 물을 맞으며 신나는 노래와 함께 춤을 추면서 새해를 즐겁고 재밌게 맞이한다. 띤잔 기간동안 물을 맞아도 화내는 미얀마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환한 웃음으로 서로에게 안부와 덕담을 전한다.

미얀마 사람들이 띤잔에 물을 뿌리는 이유는 물의 이미지와도 관련 있다. 미얀마 사람들에게 물은 '깨끗함 · 시원함' 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띤잔 동안에는 작년의 나쁜 일들을 모두 씻어낸다는 의미로 물을 뿌린다. 서로 물을 뿌리면서 상대방의 액운을 씻어주고 건강하기를 바란다. 또한 '띤잔 때 맞은 물처럼 맑고 시원하게 살며 안 좋은 일을 씻어버리자!' 라고 다짐한다. 띤잔 기간동안 미얀마 온 지역은 '물' 액땜의 축제의 장이 된다. 띤잔 기간동안 미얀마 불교의 보시문화가 큰 역할을 한다. 관공서와 미얀마의 기업인들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물을 뿌릴 수 있게 호스를 제공한다. 사람들에게 물 놀이를 편하게 할 수 있는 호스를 제공하면서 자신들의 덕을 쌓을 수 있는 물 공양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물 놀이 이후 지친 사람들에게 무료로 간식과 띤잔 음식인 몽롱예보(Mont Lone Ye Baw, 찹쌀 반죽에 야자수 설탕을 넣고 동그랗게 만든 후 물에 끓여 코코넛 가루를 뿌려 먹는 음식)를 보시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해에 다시 돌이켜보며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한다.



미얀마가 새해를 맞이하는 띤잔축제는 서로에게 물을 뿌리며 액운 해소를 발원하는 문화다.

띤잔 대표하는 버다웃 꽃

서로에게 물을 뿌리며 즐겁게 놀면서 옆을 둘러보면 아름다운 노란색 꽃이 보인다. 이 노란색 꽃은 미얀마 띤잔을 대표하는 버다웃(Padauk)꽃이다. 이 꽃은 미얀마 사람들 모두가 좋아하는 꽃으로 띤잔 기간즈음 핀다. 띤잔 기간 전에 '띤잔비' 라고 불리는 보슬보슬 내리는 비가 내려 야지만 버다웃 꽃이 만개한다. 비가 너무 많이 올 경우에는 꽃이 바닥에 떨어져 버려서 볼 수 없다. 일년에 한 번, 딱 하루만 피기 때문에 이 꽃은 '연인에 대한 언약' 을 의미한다.

미얀마 사람들 사이에는 '떼야웃소떼야웃 버다웃쏘버다웃(Ta Youk So Ta Yaouk Padauk So Padauk)' 이라는 말이 있다. '한명이라면 한명, 버다웃이라면 버다웃' 이라는 뜻인데 그 속 뜻은 '꽃 중에서 버다웃 꽃만 좋아하듯이, 당신만 영원히 사랑하겠다' 는 사랑에 대한 맹세가 담겨 있다. 또한 '제가 당신을 버다웃 꽃처럼 사랑할께요. 버다웃 꽃은 일년에 한 번만 피는 꽃이고 비가 오지 않으면 절대 피지 않는 것처럼 당신 만을 사랑 할께요.' 미얀마 사람들은 버다웃 꽃이 일년에 한 번 반드시 피듯이 배신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실한 사랑 고백과 맹세를 할 때 버다웃 꽃에 빗대어 말한다. 띤잔이 다가오기 전 자신의 집에 버다웃 꽃 조화 장식을 놓아두거나 여성들은 머리에 버다웃 꽃을 장식할 정도로 미얀마 띤잔을 대표하는 꽃이다.

띤잔의 어원은 산스크리트어 '틴깐따(Thinkanta: 변화)' 이다. 미얀마 띤잔 축제의 기원은 힌두교 신화에서 기원한다. 힌두교의 범천(梵天)과 제석천(帝釋天)의 이야기가 미얀마에서는 뱟마하민(Bya Ma Har Min: 범천)과 드쟈민(Tha Gya Min: 미얀마 37낫 신 중 첫번째 신)의 이야기로 전해진다.

미얀마에서 가장 더운 새해
호스 · 대야로 물 뿌리는 풍습
깨끗한 상징성에 액운 씻어내
띤잔 후엔 길마다 법회 봉행도

'뱟마하민과 드쟈민은 인간세계에 요일이 몇 일로 나눠져 있는지를 가지고 내기했다. 내기에서 진 사람은 머리를 자르기로 했다. 뱟마하민은 8일이라고 했고 드쟈민은 7일이라고 했다. 인간세계가 7일로 나눠져 있다는 진실을 뱟마하민과 드쟈민이 확인하게 되었다. 드쟈민은 머리를 자르지 않아도 된다고 만류했지만 뱟마하민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머리를 잘랐다. 뱟마하민의 머리를 땅으로 버리면 땅에 있는 생명체가 모두 죽어버리고, 하늘로 버리면 하늘을 이동하는 새들이 모두 죽었다. 드쟈민은 인간세계에 피해를 입힐 수 없어 매년마다 자신의 딸 7명에게 번갈아가면서 뱟마하민의 머리를 맡게 했다.'

띤잔 축제의 기원

드쟈민이 일년에 한 번 인간세계에 내려오는데, 그 기간이 띤잔 기간이다. 띤잔 기간은 보통 4일인데 첫째날(아쪼, A Kyo)은 드쟈민이 인간세계로 내려오는 전 날, 둘째날(아짜, A Kya)은 드쟈민이 인간세계로 내려오는 날, 셋째날(아짜, A Kyat)과 넷째날(아땃, A Tat)은 중간날과 마지막날이다. 띤잔 마지막날이 끝나고 난 후 그 다음날이 미얀마 새해이다. 미얀마 사람들은 띤잔 기간동안 물을 뿌리는 행사 이외에도 인간세계로 내려오는 드쟈민을 위한 의식을 진행한다. 띤잔 첫째날은 드쟈민을 맞이하기 위해 '아따오(A Tar Oh)' 라는 의식을 진행한다. 아따오 의식이란 자신의 요일(월요일:별꽃 · 화요일:자두나무 잎 · 수요일:크로톤 잎 · 목요일:구아바 잎 · 금요일:오이제니아 잎 · 토요일:인도멀구슬나무 잎 · 일요일:코코너 나뭇잎)을 상징하는 꽃 혹은 잎을 화분에 꽂아 두는 것이다.

띤잔이 끝나고 난 후 새해가 된 날 미얀마에서는 길 구역마다 법회를 진행한다. 이 때, 아따오와 모래와 실을 챙겨간다. 법회에서는 '보호주(Paritta)' 를 독송한다. 법회가 끝나고 난 후 집으로 돌아와 모래를 집 주위에 뿌린다. 아따오에 꽂은 아따 꽃을 마당 문이나 입구 문에 꽂고 실은 아이들 목에 걸어준다. 요즘에는 모래를 챙겨가는 대신에 물병을 챙겨 간 후 법회가 끝나면 집으로 귀가하여 물을 마시거나 가족들 머리에 물을 톡톡 적셔준다. 귀신을 쫓아 내기 위해 집에 돌아온 후 물건들 중에서 치면 소리가 나는 것들을 세게 친다.

미얀마 사람들이 드쟈민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띤잔 기간 동안 인간세계에 내려와 일명 살생부를 적기 때문이다. 드쟈민은 황금 공책과 개가죽으로 된 공책 2가지를 갖고 내려온다. 황금 공책에는 띤잔 기간동안 공덕을 쌓은 사람을 적고 개가죽에는 악업(惡業)을 행한 사람을 적어간다. 예전에는 아이들에게 '너 나쁜 짓을 하면 띤잔 때 드쟈민이 너의 이름을 개가죽에 적어 갈거야!' 라며 겁을 주기도 했지만 요새는 잘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한다.

바간 왕조의 마지막 왕인 '나라띠하빠떼(Narathihapate)' 가 미얀마 띤잔의 기원이다. 띤잔은 미얀마의 낫 신앙과 상좌부 불교 문화가 융합하여 형성되었다. 바간 왕조때부터 내려온 미얀마 새해 명절인 띤잔은 미얀마 사람들에게는 새해의 첫 시작을 알리는 즐거움의 경종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심신을 내년 4월, 미얀마 띤잔 축제에서 시원한 물을 맞으면서 정화해 보는 것은 어떨까? 아직 새해 다짐을 지키지 못 한 것이 있다면, 미얀마 새해를 맞아 다시 한번 시작해 보자! 그리고 올 한해 공덕을 많이 쌓아 드쟈민의 황금 공책에 이름이 적힐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선(善)하게 사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양곤대 박사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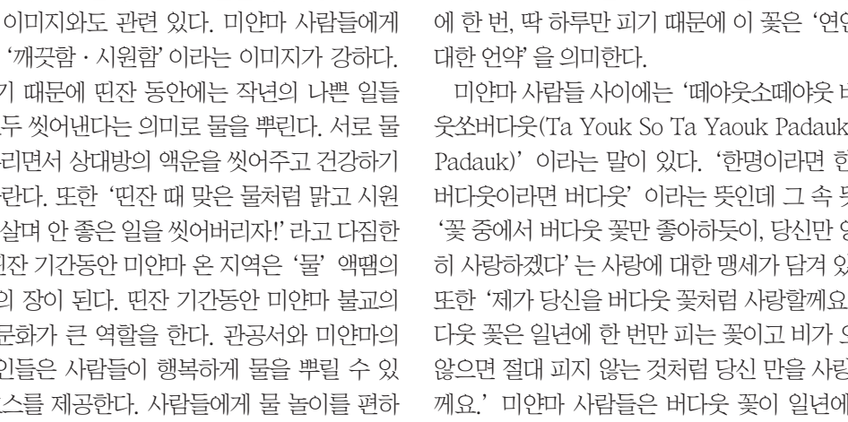
사진 위는 드쟈민의 모습, 사진 아래는 버다웃 꽃을 머리에 장식한 아웅산 수치.

GmSoft since 2015 GM SOFT 사찰신도 관리 프로그램

동종업계 최저가격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기본 19,800원 | 설치비 · 세팅비 전액무료



프로그램 주요 기능
❶ 연등표 출력
❷ 인등표 출력
❸ 위패출력
❹ 문자발송
❺ 기부금 영수증
❻ 사주팔자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지엠소프트 [지엠소프트]를 검색하세요

대표전화 070-7633-2525, 010-8588-2525
상담문의 평일 09:30 ~ 17: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www.gmst.co.kr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 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일 없는 사람이 귀한 사람



지안 스님의 임제록 강설

⑯ 마음이 법

임제가 대중에게 말했다.

"여러분, 참되고 바른 견해를 갖추고, 천하를 마음대로 다니며 도깨비처럼 사람을 어지럽히는 일에 현혹당하지 말아야 한다. 일 없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다. 조작된 마음을 일으키지 말고 다만 평상의 마음 그대로이면 된다. 그대들이 밖으로 나가 바른길이 아닌 엉뚱한 옆길로 들어가면 벌써 틀려먹은 것이다. 부처를 찾으려고 하지만 부처는 이름뿐이다. 그대들이 밖에서 부처를 찾겠다며 찾고 있는, 그가 누구인지 아는가? 삼세와 시방의 부처님과 조사들이 세상에 나온 것은 불법을 구하기 위해서다. 지금 선을 참구(參究)하는 여러분들도 단지 법을 구하기 위해서다. 법을 얻으면 그것으로 된 것이요, 얻지 못하면 예전처럼 지옥 · 아귀 · 축생 · 인간 · 천상의 다섯 곳을 윤회할 뿐이다.

법이란 무엇인가? 법이란 바로 마음의 법이다. 마음의 법은 형상이 없으면서도 시방을 관통하고, 눈앞에 버젓이 작용하고 있다.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못하고 문득 이름과 글귀를 분별하면서 문자 가운데서 찾으려 하고 불법을 헤아리고 있으니 하늘과 땅만큼 어긋나버린다."

불교의 범어 어원은 붇다 다르마(Buddha Darma)이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불법이라고 해야 맞다. 붇다는 '불(佛)' 이고 다르마는 '법(法)' 이다. 법(法)이 교(敎)로 바뀌어져 불교라 하게 되었다. 법을 알아야 부처가 된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법을 구하는 것이 수행이다.

어느 날 임제가 대중에게 법문을 하면서 부처를 구한답시고 사방으로 돌아다니지 말고 자기 마음 안에서 법을 구하라는 일침을 가한다. 법이란 바로 마음이니 마음을 어디 가서 찾느냐는 말이다. 온 시방을 관통하면서 눈앞에 버젓이 작용하고 있는 이 마음에 주의를 기울여야 공부가 되는 것이지 남을 찾아가 이런 말 저런 말을 듣고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고 하였다.

'마음이 법' 이라는 것은 일찍이 마명(馬鳴 · Asvaghosa)이 〈대승기신론〉에서도 선언해 놓은 말이다. 마음이 법이고 부처인데 마음 밖에 부처가 있고 법이 있는 양 객관을 의식하는 분별심을 일으키면 엉뚱한 길로 가고 만다는 것이다. 바다나 호수의 물이 본래는 파도가 일어나지 않는 고요한 수면 그대로 있는 것인데 바람에 의해 파도가 일어나듯이 분별이란 본래의 마음에는 없었다. 선(禪)의 목적인 견성(見性)이란 번뇌가 일어나기 이전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승찬대사 〈신심명〉 첫 구절에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오직 간택(揀擇)을 꺼릴 뿐이다.(至道無難 唯嫌揀擇)"고 하였다. 간택이 곧 분별심이다.

이 대목의 또 하나 중요한 말은 '일 없는 사람이 귀한 사람' 이라는 말이다. 참으로 묘한 말이다. 일이 없다는 것은 조작하는 마음이 없는 순수한 본래 마음, 번뇌에 의해 욕심이 생기거나, 근심이 생기거나, 의심이 생기지 않는 평상심을 두고 한 말이다. 헐떡거리는 마음 곧 치구심이 가라앉으면 일 없는 사람이 된다. 영가의 〈증도가(證道歌)〉에도 '절학무위한도인(絶學無爲閑道人)은 부제망산불구진(不除妄想不求眞)' 이라는 말이 나온다. "배움을 멈추고 할 일이 없는 한가로운 도인은 망상을 제거할 것도 없고 참된 것을 구할 것도 없다."고 했다. 논리적으로 말한다면 완성된 경지에 이르면 더 할 일이 없는 것이다. 할 일이 남아 있다면 그것은 완성된 경지가 아니다. 그러나 완성된 경지가 무엇을 시작해서 끝을 본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실은 본래 아무것도 하지 않던 무위(無爲)의 상태로 돌아간 복귀(復歸)의 자리다. 불교의 수행이란 진심(眞心)에 복귀하는 일이다.

달마의 사행론(四行論)에서 말하는 무소구행(無所求行)이 '일 없는 것' 이다.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는' 경지에 이르러야 생멸심(生滅心)이 없어지는 것이다. 임제도 이 무소구행을 강조했다. 도를 닦는다 하고 닦는 사람은 온갖 번뇌만 다투어 일어날 뿐이라 했다. 잠속에서 꿈을 꾸는 사람은 잠에서 깨어나야 할 일이 있지만 이미 깨어난 사람에게는 잠 깰 일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공부가 성취된 분상에서는 일이 없지만 수행 도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열심히 정진할 일이 남아 있는 것이다. 선의 세계를 달리 표현해 보자면 일 있는 데서 출발하여 일 없는 데로 가는 것이고 말 있는 데서 출발하여 말 없는 데로 가는 것이다.

〈조계종 고시원장〉

붓다 되려면 '반야바라밀' 배워야



세상 속 경전읽기

⑯ 오안(五眼)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라는 말은 '백 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 , 곧 '한 번 보는 것이 백 번 듣는 것보다 훨씬 낫다' 는 뜻이다. 이는 후한(後漢)시대의 역사가 반고(班固)가 지은 〈전한서(前漢書)〉의 '조충국전(趙充國傳)' 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전한(前漢)의 제9대 황제 선제(宣帝 · BC 74~BC 49)가 강족(羌族)의 반란을 진압할 방책을 묻자, 조충국 노장군(老將軍)은 "백 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합니다"고 하며, 전쟁터 인근으로 가 현지를 살펴본 다음 방책을 제시하여, 이후 강족의 반란이 차차 수그러들었다고 한다.

사람은 5근(根) 중에 안근(眼根)에 가장 많이 의존한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을 가장 많이 믿는다. 그러면 우리 육안은 정말 믿을 만한 것인가? 우리는 무지개의 7색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보라색보다 파장이 짧은 자외선이나 빨강보다 파장이 긴 적외선은 보지 못한다. 또 아주 작은 것은 육안으로 볼 수 없어서, 작은 것을 보려면 현미경, 전자현미경 등 기계의 도움을 받아야한다. 멀리 있는 것도 볼 수 없어 망원경의 도움을 받는다. 필자는 흰 종이를 볼 때 오른쪽 눈에는 희게 보이지만 왼쪽 눈에는 약간 미색을 띈 흰색으로 보인다.

40대 중반에 미국 오레곤건강과학대학교(OHSU)에 2년간 교환교수로 갔을 때 이미 노안(老眼)이 왔다. 책을 읽는 일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었으므로 노안 보정 안경을 쓰지는 않았고, 일상에서 불편한 점은 없었다. 그런데 감염된 치근관(잇속의 관, 일반인이 신경이라고 부르는 곳) 내의 미생물들을 배양하여, 현미경사진을 찍을 때가 문제였다. 내 눈에 균이 잘 보이게 초점을 맞추어 놓고 현미경사진을 찍으면 초점이 맞지 않는 사진이 인화되어 나왔기 때문이다.

붓다는 모든 법의 사(事 · 현상)와 이(理 · 이치)를 관조하는 5종의 눈인 오안(五眼)을 갖추고 있다. 곧 육안(肉眼) · 천(天)안 · 혜(慧)안 · 법(法)안 · 불(佛)안을 갖추고 있다. 범부는 가려져 있는 것은 보지 못하는 육안만 갖추었고, 욕계 · 색계의 천인(天人) 또는 사선정(四禪定)에 든 사람은 천안을 더 갖추고, 원근(遠近), 과거와 미래, 내외(內外) 및 세밀한 인과(因果)를 볼 수 있다. 성문(聲聞) · 연각(緣覺)은 혜안(慧眼)을 더 갖추고 있는데, 현상의 이치는 보지만 중생을 구제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보살은 법안(法眼)을 더 갖추고 있는데, 모든 현상의 참모습과 중생을 구제하는 방법을 두루 안다. 붓다는 불안(佛眼)을 더해 5안을 갖추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본다. 5안을 갖춘 이가 붓다이다. 오안을 갖추려면 곧 붓다가 되려면, 반야바라밀을 배워야 한다.

"또한 사리불이여! 보살마하살이 5안(五眼)을 얻고자 하면 마땅히 반야바라밀을 배워야 한다. 오안이란, 육안 · 천안 · 혜안 · 법안 · 불안이다."

〈摩訶般若波羅蜜經 T0223_.08.0220b15~17〉

반야는 '모든 붓다[諸佛]의 어머니[성불의 원인]' 라 불리며, 이러한 내용은 〈반야경〉을 비롯한 대승경전이나 논서에서 널리 강조되고 있다.

"붓다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반야바라밀이 모든 붓다의 어머니이니라."

〈摩訶般若波羅蜜經 T0223_.08.0326a07〉

"반야바라밀은 과거 · 미래 · 현재 시방(十方) 모든 붓다의 어머니이니라."

〈摩訶般若波羅蜜經 T0223_.08.0423c19~20〉

"반야바라밀을 마땅히 설하니 받아 지니도록 하라. 이것(반야바라밀)이 붓다의 어머니이고 보살의 어머니이니라."

〈佛說仁王般若波羅蜜經 T0245_.08.0831a02〉

〈배광식 서울대 치의대학원 명예교수〉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⑫ 닦음의 길 2

붓다의 수행 '위빠사나'

한국불교는 누가 뭐라 해도 선(禪)이 그 중심에 놓여있다. 물론 선교회통(禪敎會通)의 전통이 지금까지 면면히 이어지고 있지만, 무게 중심은 아무래도 선으로 향해있다. 우리나라 최대 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 역시 선종의 다른 이름이다. 해마다 두 번에 걸쳐 행하고 있는 안거(安居) 기간에는 전국의 선원에서 눈 푸른 납자들이 선 수행에 정진하고 있다. 특히 화두를 드는 간화선(看話禪)이 오랫동안 대세를 이루어왔다.

그래서인지 싯다르타가 화두를 타파하고 깨침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다. 간화선은 송나라 때 대혜종고(大慧宗杲, 1089~1163)가 개발한 수행법으로 이를 우리나라에 소개한 인물은 고려시대 보조국사 지눌(知訥, 1158~1210)이다. 그 후 지금까지 한국 선불교의 대표적인 수행법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다. 붓다 당시에는 간화선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싯다르타가 이런 수행을 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붓다를 위대한 깨침으로 이끈 수행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8정도 가운데 정념(正念)으로 알려진 위빠사나(Vipassana)다. 부귀영화를 모두 버리고 집을 나온 싯다르타는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선정과 고행을 수행하였다. 그런데 당시 유행했던 두 수행은 몸과 마음이 분리된 실천이었다. 그는 수행하는 동안 몸 따로 마음 따로 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지금까지 처절하게 해왔던 고행을 과감하게 버렸다. 그리고 진리를 깨치기 전에는 결코 일어서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보리수 아래 앉았다. 그는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조금도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기 시작하였다. 위빠사나 수행법이 탄생하는 순간이다.

붓다는 자신을 깨침으로 인도한 수행에 대해 자부심이 강했다. 그는 〈염처경(念處經)〉에서 위빠사나를 "중생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걱정과 두려움에서 건지며, 고뇌와 슬픔을 없애고 바른 법을 얻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과거의 모든 부처도 이 법에 의해 최상의 열반을 얻었고, 현재와 미래의 부처도 이 법으로 열반을 얻을 것"이라고 하였다. 붓다에게 위빠사나가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수행법이 남방으로부터 소개된 것은 80년대 이후의 일이다. 그 전까지는 소승선(小乘禪)이란 이름으로 그 가치가 절하되고 있었다. 근기가 뛰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행하는 열등한 수행법이라는 뜻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절대적 신앙의 대상인 붓다의 수행법을 불자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셈이다. 간화선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위빠사나를 이렇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자칫 붓다보다 대혜종고를 우선한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는 일이다. 이는 불교 역사에 대한 무지와 간화선 제일주의가 낳은 자기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붓다를 바로 알기 위해서도 그를 깨침으로 이끈 위빠사나는 재평가 되어야 한다.

이 수행법의 요체는 앞서 언급한 대로 '있는 그대로' 보는(觀) 데 있다. 그래서 관법(觀法)이라 부르기도 한다. 어떠한 왜곡도 없이 있는 그대로 보면 존재하는 모든 것이 무상(無常)이고 무아(無我)라는 실상을 깨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를 고통 속에 빠트리고 있는 불안과 공포,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붓다는 강조한다. 왜 그럴까? 바로 걱정과 두려움, 공포 등은 본래 영원하지 않으며(無常), 그 실체 또한 본래 없기(無我) 때문이다. 대승에서는 이를 공(空)이란 용어로 재해석하였다. 〈반야심경〉에서 이러한 공의 지혜를 깨치면 "두려움이 없고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간다(無有恐怖 遠離顚倒夢想 究竟涅槃)."고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붓다는 분명 위빠사나를 진리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하였다. 붓다가 직접 걷고 중생들을 위해 닦아놓은 위대한 길을 우리는 역사에 대한 무지로 인해 소홀히 취급하고 말았다. 이제 참회하는 마음으로 오류를 바로 잡아야 한다.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붓다의 수행법을 보아야 한다. 다음 호에서는 그 원리와 실존적 의미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빛나는 금니불화의 탁월한 장엄성!
면발광LED인등


면발광LED인등
발명특허 제10-2350047호
010-6857-0108
http://www.sungbulwon.co.kr
盛拂園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418-1
문화재수리기능 8826호 양학모,양희곤 父子합장
수미단 닫집 영단 인등 경탁 위패 기타 법당장엄일체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가정집
A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Q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 서울·경기 02-456-8831 · 충 청 도 010-6545-3350 · 전 라 도 011-248-6298
· 강 원 도 019-396-1110 · 경 상 도 010-4187-0062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칼라산업지붕공사

성숙된 나의 재발견 '자아인식'

명상書 톺아보기

김정호의 〈MPPT 워크북〉

〈2〉 마음사회이론



마음사회이론은 마음을 여러 '나'들로 이루어진 사회로 설명한다. 달리 표현하면 나는 여러 '나'들로 이루어져 있다. 내 마음은 사회와 같아 그 안에 많은 '나'들이 구성원으로 산다. 각각의 '나'들은 내 마음의 다양한 욕구, 생각들을 반영한다.

지킬박사와 하이드 씨처럼 극단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우리 마음에는 여러 '나'들이 살며 하나의 몸을 사용하고 있다. 공부하고 싶은 나도 있고 놀고 싶은 나도 있다. 옹졸한 나도 있고 너그러운 나도 있다. 이기적인 나도 있고, 이타적인 나도 있다. 외향적인 모습의 나도 있고, 내향적인 모습의 나도 있다.

역사적으로 커다란 공헌을 한 사람들 중에는 매우 상치되는 모습을 가졌던 인물들도 있다. 그들은 위대한 면모 외에 건강하지 못한 모습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프랑스의 위대한 작가이며 사상가인 루소는 교육소설 〈에밀〉로도 유명하고 당시 계몽주의 사상가들과 함께 프랑스 혁명의 정신적 지주였으며, 페스탈로치에게도 많은 영향을 준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모두 다섯명의 자식을 고아원에 버리기도 했고, 자기 집의 가정부와 자기가 부렸던 아랫사람, 그리고 하숙집 딸 등을 성희롱한 인물이기도 했다. 링컨이나 처칠은 각각 노예 해방을 이끌었고, 2차 대전의 승리에 크게 기여했던 위인이기도 했지만 내면적으로는 평생 우울에 시달린 사람들이다.

마음사회이론은 내 마음을 이해하고 관리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마음의 건강에 기여한다. 무엇보다 마음사회이론을 갖게 되면 나에 대해 좀 더 객관적인 관심을 갖게 되고 나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 커진다. 마음사회이론을 이해하면 내 안의 부정적인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이 쉬워진다. 마음은 여러 '나'들이 사는 사회이므로 부정적인 욕구나 생각이 올라와도 크게 놀라 억누를 필요가 없다. 여러 '나'들 중 하나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성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욕구나 생각이 올라와도 여러 '나'들 중의 하나, 즉 1/n일 뿐이다. 그 것이 나 전체일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것을 부정하거나 억압할 필요가 없다. 욕구나 생각은 올라올 수 있는 것이다. 욕구나 생각조차 못하게 한다면 더 큰 부작용을 만나게 된다. 부정하고 억압할 때 그 것은 마음 한구석에서 썩어 들어가거나 분노의 칼을 간다. 마음 안의 여러 '나'들에 대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나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소외되거나 억압받는 '나'들이 없어지므로 마음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나를 인정하지 않고, 비난하면 결과적으로 자존감의 저하에 빠진다. 그러나 마음사회이론은 부정적인 모습도 잘 수용할 수 있으므로 자존감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또 마음을 사회로 보지 못하면 자기 자신에게 여러 가지 모습이 있다는 것이 모순되게 느껴지고 어떤 것이 진짜 나인가 하는 정체성의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런 고민도 할 필요가 없다.

마음사회이론은 마음을 관리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마음이 극단적으로 우울이나 불안 또는 분노에 사로잡혔을 때도 마음은 사회라는 관점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지금 우울-나, 불안-나, 분노-나가 마음의 무대를 점거하고 있지만 무대 뒤에는 여전히 밝고 건강한 '나'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어떤 나도 마음의 무대를 오래 점유할 수 는 없음을 잘 알고 현명한 선택을 하거나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기가 쉬울 것이다. 극단적인 우울-나 또는 극단적인 분노-나에게 지배당해 스스로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마음사회이론을 갖게 되면 심리적 유연성이 높아진다.

마음을 사회로 보는 관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 '나'들을 잘 이해하고 조화롭게 조율해가는 것이다. 어떤 '나'들이 살고 있는지 또 각각 다양한 모습들의 '나'들이 어떤 주장들을 하고 있는지 잘 귀를 기울이고 이들이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사회에서 구성원들간의 소통, 즉 개인간의 소통이 중요한 것처럼 내 마음의 사회에서도 '나'들간의 소통 즉 개인 내 소통이 중요하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개인간 소통에는 비교적 관심을 갖는 편이지만 개인 내 소통에 대해서는 관심이 거의 없다.

> "내 마음 이해 · 관리가 마음 건강을 지켜낸다"

내 마음을 여러 '나'들이 사는 사회로 볼 줄 알게 되면 내 안의 여러 '나'들간의 소통에도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A라는 사람 속에 A1호, A2호, A3호 등 수많은 A가 살고 있다. B라는 사람 속에도 B1호, B2호, B3호 등 수많은 B가 살고 있다. 매 순간 나는 어떤 나로 살고 있는지 잘 아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어떤 때 어떤 나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잘 알고 불러내는 운용의 지혜도 필요하다. 마치 영화감독이 각 상황에 따라 필요한 배우를 등장시키듯이 축구 감독이 상대팀에 따라 선수를 기용하고 배치하며 상황에 따라 선수교체를 하듯이 내 안의 여러 '나'들을 잘 운용하는 것이다.

마음을 사회로 보면 대인관계에서도 도움이 된다. 내 안에 수많은 '나'가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 안에도 여러 '나'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다. 내가 조건과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른 내가 나타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이 나타난다. 특정 조건과 상황에서 나타내는 내 모습 만으로 나를 규정하는 것이 옳지 않듯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모습만으로 그 사람을 단정지으려고 하면 공정하지 않다. 오히려 내 앞에서 상대가 부정적인 모습을 보일 때 내가 그 사람의 부정적인 모습을 불러내는 조건을 제공한 것은 아닌지 돌아볼 줄 알게 된다.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도 나는 지금 나의 몇 호를 등장시키고 있고 등장한 내가 상대의 몇 호를 불러내고 있는지 잘 아는 것이 필요하다. 평소에 남편이 밉다면 나는 남편 3호만을 보고 있는 것이다. 남편 마음에는 남편 3호 말고도 많은 남편들이 살고 있다. 그런데 왜 남편은 내 앞에서 남편 3호만을 보여주고 있을까? 내가 많은 남편 중에 남편 3호만을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마음을 사회로 보는 관점을 취하면 나 자신과 상대를 잘 이해하고 대인관계에서의 갈등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아래에 소개하는 〈좋은 생각〉의 발행인 정용철 작가의 '나는 청개구리'는 내 마음이 사회임을 잘 통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가 이 정도의 자아인식을 갖추고 있다면 그만큼 성숙하다고 하겠다.

나는 청개구리

나는 믿는다고 하면서 의심도 합니다.
나는 부족하다고 하면서 잘난체도 합니다.
나는 마음을 열어야 한다고 하면서
닫기도 합니다.
나는 정직하자고 다짐하면서
꾀를 내기도 합니다.
나는 떠난다고 하고서 돌아와 있고
다시 떠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참아야 한다고 하면서 화를 내고
시원해 합니다.
나는 눈물을 흘리다가
우스운 일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나는 외로울수록 바쁜척합니다.
나는 같이 가자고 하면 혼자 있고 싶고
혼자 있으라 하면 같이 가고 싶어집니다.
〈중략〉
흔들리고 괴로워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있습니다.
내일이 있습니다.
그 내일을 품고 오늘은 이렇게 청개구리로
살고 있습니다.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 4만원/회 ◆가로 9㎝ :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290호 | 15 | 전면광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면 지혜가 생길 것이요,
마음에 지혜가 생기면 곧 깨달음이
생길 것이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불반니원경》에서

범불교조계종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종도모집 및 승려증 발급종단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 찰 행 사 전 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0-9317-6686
「유튜브」에서 대명스님을 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허리병 고치는 법 받을분 배울분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 내 몸에 맞는 체조로 허리병 고친다
중풍예방. 디스크. 협착증. 불면증.
성인병 등 각종 질병
한번만 오시면 퇴치 가능
2대째 이어온 운동법 발명 특허 획득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검색
50년 전통 상담
010-3829-7582

불 교 용 품
고 가 매 입 전 문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 대불
탱화, 개금, 석불, 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 제작
이조불교재활용센타
010-9177-7842

금동아미타 삼존불 -양 도-
(네이버검색)
부처골 지장선원
010-8585-4908

입종 동참안내
부처님의정원 · 사암
포교원 · 선원 · 불교문화원
종단 · 단체 · 연합회
입종 동참바랍니다
한국불교 종무청
010-5412-8040 법광

★책-검색★
①인생최고의 깨달음(참불교)
②천기소설 예언자(현존불)
③기도와 명상(최상수행법)
④천등산(신통해탈기도비법)
⑤출세의 기술(성공출세술)
⑥운타이밍재테크(평생부자)
네이버에 위 책이름 또는 작가
'태산선사' '손재찬' '손도사'등을
꼭 한번 검색 • 구입해 보세요!!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3263-6544
문의 010-5270-8260

운명학 단기완성
데이터 기반 명리학과
특별한 비법 단기 강의,
스님께 확신이 됩니다
3개월 단기완성 | 수업료 : 5백만원 교육시간 : 주2회 (2시간씩)
문의 010-2480-5677
(아는소리 명리학당 총무)
한국불교태고종 지성선원(창원시 성산구)

사찰화재 보험
●목조건축물 OK!!●
전국 최다 사찰 가입
010-7344-1881

디자인 명리학 수강생모집
운명을 디자인한다
지금까지 이런강의는 없었다
보다 쉽고 정확하게 간명할 수 있는
신개념의 사주명리학
(기초부터 고급핵심이론까지 1년과정)
여기저기서 배워도 제대로 통변할수 없었는 분들
초보자, 스님, 무속인, 일반인 모두 환영
문의 운명디자인연구소 010-7328-0089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
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충남 예산)
010-5576-227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포항)
010-4448-3750

특수한
기도법 전수, 스님에 한합니다.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1-741-0867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 위주의 교육
2. 수계후공부100%(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함
문의: 054-753-8228, 010-8852-0075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질병, 간암, 묘터,
유산낙태, 조상영가, 교통사고, 이혼수, 직장 승진운
• 스님, 무속인, 일반인, 철학인
• 출장 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명리구성학, 육임학, 성명학
상담문의 010-4014-8822


영혼과 마음을 맑게 하는 신비의 침향 염주입니다. 침향
구입문의 : 010-2033-6636
❶ 108염주(8m) : 1벌 5만원 (10벌 이상 4만원) ❷ 108염주(10m) : 1벌 10만원 (10벌 이상 9만원)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꽃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화제 "빨간 속옷"을 입으면 행운이 온다
"돈이 좋아하고, 따르는 속옷이 있습니다"
붉은악마(치우천왕)은 2002년도 우리나라 축구를 세계4강에 승리하는 기적을 일으켰다!!! 치우천왕 유래에 따르면 그 옛날 '전염병'이 도질때 우리조상들은 '장승'의 모양으로 마을어귀에 세워 전염병을 막게 하였다. "운이 있는 사람과 운이 없는 사람을 일평생 비교하면 누가 더 큰 손해인가?" 지금 '코로나19'가 우리나라 전국에 퍼져 온 국민이 걱정이다. 좋은 운이 따르는 '치우천왕 빨간 속옷'을 비법으로 꼭 입으시어 나와 내 가족이 나쁜 운을 만나지 않게 되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고 돈도 들어오게 되고 건강하고 부자로 잘사시기를 바라는 바이다.
치우천왕 빨간속옷 2장 ~~10만원~~ ⇨ 5만원
Daum 카페에서 치우천왕 정담 을 검색하세요.
국민은행 324702-04-162923 예금주 : 배정민
상담전화 010-4500-8234

명리·육효강좌
(연결카페http://cafe.naver.com/baikamsa 백암역리원)
영 가 반 ○ 초보에서 실천완성
명리·육효학 ○ 초보반 : 명리·육효 기초가 전혀없는 왕초보
○ 실전반 : 명리·육효 기초 완성자
백암역리원 02)597-1101
오시는 곳 : 사당역 8, 9번출구 먹거리골목200M

대방광불화엄경의 감춰진 비밀
초발심자가 문뜩 정각을 이루는 법!!
1. 화엄경의 교주는 비로자나 부처님이다.
2. '신위도원공덕모(信爲道元功德母)'라는 화엄경의 표현에서 믿음(信)은 법신부처님에 대한 믿음이다.
3. 믿음을 알고 발보리심한 보살은, 찰라지간에 성불한다. 그래서 '초발심시변정각'이라고 했다.
4. 선견약이라는 대약수는 보리심인데, 일체 질병과 독한 전염병으로부터 생명을 지켜준다.
5. 앞으로 한국의 화엄사상은 전세계 정신문명의 새로운 빛이 된다.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강의 ◉◉
소책자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주십시오 문의 : 010-7131-7084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19,000원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구입 문의 | 02-732-1520
입금 계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2020년 실전 사주 명리학 무료강의 제12기 수강생 모집
그동안 제1기에서 제11기까지 전국에서
1,0000여분의 스님이 수료하셨습니다.
2020년에도 스님과 불심 깊은 불자들에게 무료로 명리학을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대 상
1) 현재 사찰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이나 총무보살
2) 불심 깊은 불자님들
◆수강신청방법 : 전화로 신청하시면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① 교육기간 : 2020년 3월 10일(화) ~ 9월 1일(화)까지
② 수 강 료 : 약 6개월 교육 전기간 강의료 무료
③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오후 4시 (3시간)
④ 책 자 : 초급에서 고급비법까지 총 8권 (책자대금 : 20만원 준비)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 종헌(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구단구궁법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수강료
◆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부산 ❷,❸호선 덕천역 2번 출구 20m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98 (구포동 147-3) 3층 전층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7㎝: 7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290호 | 16 | 전면광고

마음이 생기면 갖가지 법이 생기고
마음이 소멸하면 갖가지 법이 소멸한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능가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수도권
◎ 대지 : 2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30평
◎ 매가 : 17억5천
◎ 위치 : 충북 제천
◎ 부지 : 35,000평
◎ 사찰부지, 도로접
◎ 배산임수
◎ 매가 : 평당15,000원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채권 채무상담 받습니다.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공양주,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사찰순례,채권상담,종교법인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나주 동강면
- 대지 230평(임대)
- 법당 20평. 산신각 10평
- 요사채 2동. 범종각
- 영산강 전망이 좋음
- 가액 : 3500만원

010-7637-1250

사찰(급)안내

- 위치 : 경주시 시래동. 정남향
- 대지 194평. 건평 43평
- 법당. 칠성. 산신. 용왕. 나반. 방친견실. 공양간. 샤워실. 화장실
- 외부시설 : 용왕연못. 탑. 남여화장실 등
- 시설일체. 최고입지요건 갖춘 암자
- 가액 : 2억 3천만원(급양도)
- 사전 전화요망

010-5427-3699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 4층 건물에 3층, 40평
- 법당, 상담실, 방2, 주방, 화장실, 주차장, 옥상에 창고사용, 도시가스
- 보증금 1500만원 / 월세 50만원 (시설비 협의)

010-8695-6537

사 찰 안 내

- 위치: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 평수 : 470평
- 가액 : 6억(점충가능) ● 조건: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불상,불화등기타) ● 주변 주차시설 양호함 ● 도시가스, 상수도임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쪽

010-3128-2399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 전망 좋은 사찰
- 대지 : 350평
- 대웅전, 삼성각, 요사채 2동(1동은 세집 월세받음)
- 많은 주차, 남향집, 도시가스
- 가액 : 11억 5천만원

010-3269-1023

좋은사찰안내

- 위치 : 서울도심
- 대지 200평, 법당 50평, 요사채 100평, 별채 50평
- 가액 : 25억 (대출가능)
- 신도다수
- 건강문제로 양도코저 함

02-992-0032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대지 : 335평
- 대웅전.삼존불.목불.목후불탱화.목조단청12평. 요사채.방3개.목조단청19평. 공양간.방1개.7평목조단청. 화장실 남.여(목조단청)
- 상담 후 결정

010-3206-6622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내 대단지 아파트 뒤 산속. 차량 진입 불가
- 3만평 중 5천평 지분 등기가능
- 가액 : 4억 6천(조정 가능)
- 무허가 건물 ⬬ 종무소.삼성각. 용왕전. 다실. 창고 각각 한동
- 1층화장실(해우소)/2층공양간 /3층 법당(큰법당)

011-9394-8511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금정구 서동 미로시장 입구
- 2.3층 30평씩 2층법당 3층공양간
- 보증금1천5백 / 월57만
- 시설비, 영상통화 절충

010-8339-5525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영천 청통 부근 산을끼고 아주 조용한 사찰 단청, 주련 현판
- 총평수465평, 현대식건물2동
- 1층 요사 30평, 14평
- 2층 30평 법당
- 주차장 확보
- 가액 : 3억 9천만원

010-5804-5100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포천
- 대지 952평, 법당 목조단청 30평, 산신각목조단청 10평, 요사채60평, 주방30평, 주차장300평
- 위치및 접근성과 조망권좋음
- 가액 : 25억

010-5129-527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지하철 역세권 대도로접3층
- 약 50평, 도시가스, 옥상사용, 주변주차시설양호
- 보증금 500만, 월 45만
- 시설비 1300

010-7337-595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암 자 안 내

- 위치 : 영덕군 창수면 신리리 산4-1
- 법당, 산신각, 요사채 각 1동.
- 가액 : 3천 8백만원. (원매자 현장방문후 조정가)
- 문중땅 도지세1년 20만원.

010-5714-7872

절 터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 구성면
- 용호리 835번지 / 836번지 836번지 : 약 300평, 835번지 : 임야 약 130평, 총 430평
- 암자 지어서 수행하실 분 (깨끗한 약수샘물 나옴)
- 사정상 급양도 3,700만원

010-7628-999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 2층에 2층, 약 80평
- 보증금 250만, 월 40만
- 시설비는 보시고 협의
- 16년 포교원 운영중

010-9422-1233

별장같은 토굴 임대

- 위치 : 제주시(판넬주택)
- 임야 약1천2백평중 대지132평
- 법당(26평), 요사채(36평), 야외법당(약사여래불), 시설일체완료 (바랑만 메고 오시면 됨)
- 보증금 5천 / 월세 50만원

010-4846-3968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해남군 소재
- 대지 : 350평
- 건물 : 약 80평 (법당, 요사채)
- 가액 : 답사후 결정

010-7584-8338
010-5718-0073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북 상주시(적십자병원 근처), 대지100평, 건평40평정도(옛날집)
- 주차 여러대 가능, 비품 사용가능
- 가액 : 시설비 1천 5백만원 (보증금없음)
- 일년세 : 3백만원
- 위치상 여러용도로 사용가능함

010-2164-37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산 47-3 (한산사)
- 대웅전, 약사전, 산신각, 현대식 요사채
- 전세 2억 2천
- 관광지 최참판댁 옆, 풍광이 아름다움

010-3362-5496

토 굴 안 내

- 위치 : 충남 청양I.C 인접 대전, 천안 3~40분 거리 ● 대지 : 약 200평, 텃밭 200평(문중소유) ● 법당 : 콘테이너 하우스(확장가능) ● 요사 : 약 20평(황토 리모델링) 방사, 주방, 해우소(손볼곳없음) ● 가액 : 3천만원(건물) 전세도 가능 ※서산암자 권리금 2천만 상담요

010-3977-212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혁신도시에서 10분 거리
- 대지 : 360평 ● 사용 가능 부지는 약 500평(하천 부지 포함)
- 법당. 삼성각. 약사여래. 3층 탑. 석탑 요사채 2개. 창고 3개. 주차시설 완비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 3억 8천만원

010-4583-489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남구 송도동(절앞에는 소나무숲 공원, 절옆에는 바닷가(해수욕장가 있습니다.) 공용 주차장 원만, 바닷가 앞까지 주차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 현시세는 평당1천2백만원
- 등기평수 33평, 실평수50평정도
- 가액 : 3억5천만원
- 양도 : 집기 일체 (즉시법회가능)

010-2104-1717

◑ 입 종 안 내 ◐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참고사항

①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불교조계종대학림 02)511-1080

불교조계종(총무원) Tel 02)511-2026~7 | Fax 02)511-2028



생활 속의 불법수행
대행 스님과의 신행문답

주인공이란 '참나'라 해도 좋고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본래 면목'이라 해도 좋습니다. 일체를 다 싸잡아서 붙인 이름입니다.

현대불교신문(여시아문 刊) | 신국판 | 무선 | 흑백 | 480쪽 | 15,500원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스님 법어

세상 모든 생명에게 바치는 저자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를 담아냈다. 흔히 어렵다고 여겨지는 불교를 친숙하게 받아들이도록 인도한다.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 148×210mm | 287쪽 | 10,000원

구입문의 — 02)732-1520 •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 농협 053-01-269062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살아숨쉬는 생명의 돌"
희담석 방석(고급형)
수량 한정판매~!!!

정가 ~~198,000원~~ ➡ 할인판매가 120,000원



- 색상 : 살구색
- 크기 : 450mm X 450mm
※베개겸용 휴대용케이스 증정

희담 가루방석은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여도 원기와 활력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평상시 꾸준한 운동과 더불어 희담 가루방석을 함께 사용하시면 기대 이상의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방법

- 의자나 자동차 등에 일반 방석으로 사용하기만 하여도 원기와 활력을 높여 줍니다.
- 수면시 베개 대용으로 쓰시면 빠른 피로 회복 및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 머리나 목 부위에 응용하면 머리가 맑아지며, 기억력 증진에 효과가 있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판매문의 : 1688-9099 (02-732-1520)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대구지사	손문철	M 010-2813-8008
부산지사	이도경	M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M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M 010-8642-7733
경남지사	성낙두	M 010-3860-7008
영주지국	박영애	M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0mm) 판매가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행 스님

여러분의 마음의 불을 켜고 진실히 자기 주인공을 믿으십시오

마음 중심 잘 잡고 갈 수 있게…

질문 : 요즘은 올바른 종교, 바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음의 중심이 없으니까 바이러스로 인한 이러한 전 세계적인 위기 사태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삿된 믿음에 빠져서 나와 남을 해롭게 하는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전에 우리 선원에서 마음공부 하는 사람들도 단계적으로 마음공부를 가르쳐 준다는 데 있다니까 혹해서 많이들 다녔다고 하거든요.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습니다만. 그런 주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마음 중심 잘 잡고 물러섬 없이 정진할 수 있도록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 간략해서 말한다면 이 저승길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듯 꼬부랑꼬부랑하게 그냥 멀리 가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한 사람은 그냥 한 찰나고 공부를 못 한 사람은 뭐, 며칠 몇백 일이 걸리고 그렇게 해서 가죠. 그것도 붙잡아 가는 사람도 있고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문제를 둘로 보지 않고, 그렇게 모든 걸 알아서 견성을 해서 성불을 하고, 또는 구정토에 이르러서, 즉 말하자면 아미타 국토를 간다거나 이러한 문제는 살아서 다 이렇게 화현이 돼야 그냥 되는 예요. 살아서도 모습을 여기 앉혀 놓고 몇 수십억 개로 모습 모습을 만들어서….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길잡이가 깨치지 못했다면, 남의 말로 그렇게 해 놓고선 한다면 이건 부득이 잘못되는 일이 아주 허영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놓고 한다면…. 모두 자신에게다가 그 집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부에다가 그렇게 그려 놓고 한다고 해도 그것은 자기한테다 넣지 않고는 될 수가 없고 또 그것이 인제 길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게 다소 얼마씩을 이렇게 받아서 운영을 하지만요, 이 사람들한테는 해로움이 없는 게 아니라 해로움이 많을 때는 아주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길을 올바로 가지 못해서 그게 걱정이다 이거죠. 길을 올바로 가지 못하면 큰일이죠. "그럴 거 같으면 기복으로도 하는데 그까짓 거, 뭐." 이렇게 하겠지만 그게 그만큼 길이 늦어지는 거죠.

만약에 여기 이 신도님들이 그렇게 가시는 분이 있다면 여기에 앙금이 자리를 잡지 못한 분들입니다. 자리를 잡지 못한 분들이 그러지, 자리를 완벽하게 저 나무뿌리처럼 딱 잡아 놨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 나무가 흔들리지 않죠. 일 년 동안 이렇게 사는 저 수숫대도 바람이 불면 쓰러질까 봐 미리 아주 뿌리를 잘 박아서 튼튼하게 해 놓고선 바람이 불어도, 억수 같은 비가 쏟아져도 파이지 않고 잘 익어서 사람들한테 보시를 하는데요. 허허허 그래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지금 모두 화두를 가지고, 몸을 화두로 삼아 가지고 사는데 이 몸, 화두가 공해서 이 모습 하나만 봐도 여기는 생명체들이 그 세포 하나하나에 모두 생명체들이 더불어 같이 살기 때문에 내가 이 물 한 컵을 먹어도 먹은 사이가 없다. 공해서 공식하고 돌아간다. 이 먹는 것만 공식하는 게 아니라 일체 모든 게 공식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하물며 그런 걸 해 놓고선 저거 할 때 그 신도들이 만약에 절반이 잘못된다, 또 절반은 그냥 하다가 만다, 이런 경우가 있을 때 그거는 나로서는, 내가 만약에 그 부모라면 진짜로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런 얘기죠. 그런데 가다가 빠질 듯하면 그래도 올려놔 주겠죠.

하여튼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참 지금은 옛날 같지 않지만, 옛날에도 진리는 그러했고 사람은 점점 늘어 가고 이 에너지는 급속도로 이렇게 줄고 있고 그러니깐, 사람들이 좀 이런 마음의 도리를 공부해서 에너지를 좀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도리를 우리가 연구해서 쓰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이치가 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지요.

그러니깐 여러분들이 하시고 가시는 일이 잘 돌아가질 않는다 이럴 때 거기다 정신계를 첨보해서 만들면 이게 잘 돌아가지 않을까. 조그만 거든 큰 거든 상관이 없죠. 쪼끄만 거 하나가 이 세상을 다 살리고도 남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쪼끄만 거. 보이지도 않는 마음이 말입니다. 이 세상을 다 살리고도 남는데요. 그리고 영원히 먹고도 남게 한다는 얘기죠.

이 얘기가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만날 이런 공부를 해서 전자에는 그렇게 대대로 내려오면서 그렇게 고생을 했으니 인젠 대대로 올라가면서, 절대로 올라가되 올라가는 것도 없고 내려가되 내려가는 것도 없이, 생사도 없이 그냥 그렇게 영원히 자유스럽게 살자 이런 뜻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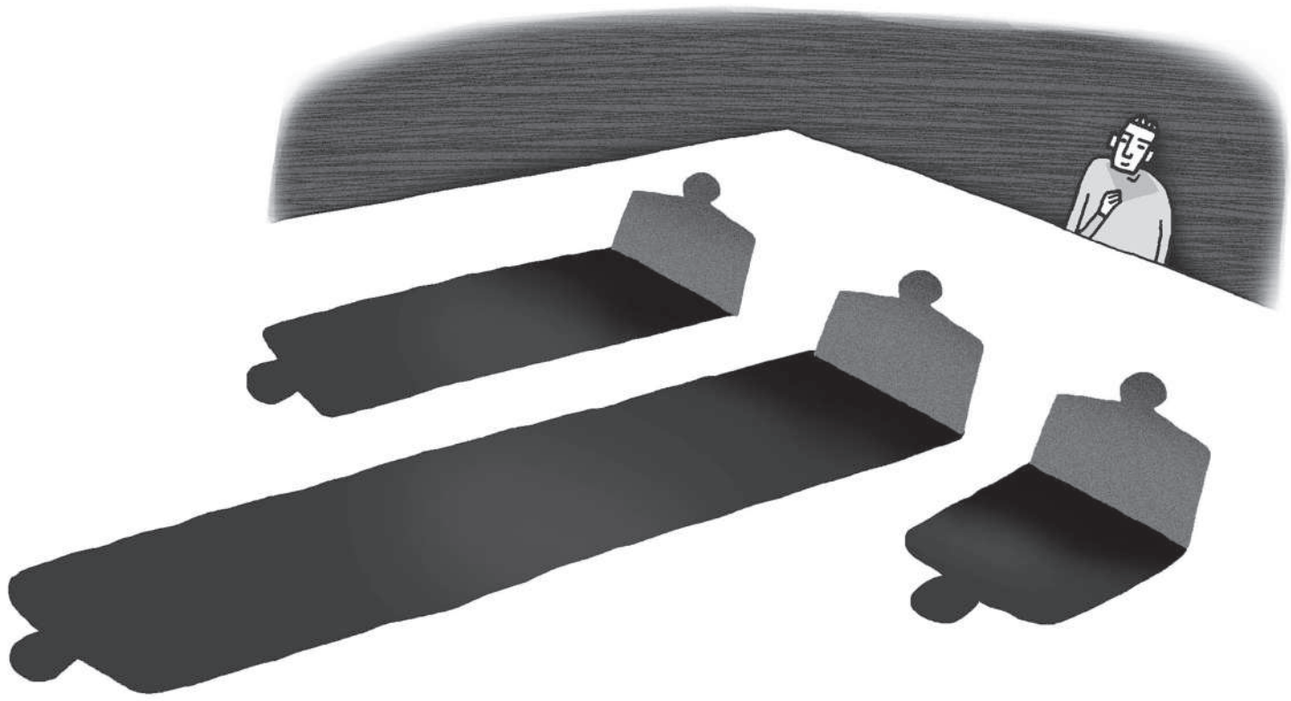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등을 밝히는 마음

질문 : 이제 초파일이 다가오는데 올 초파일은 좀 우울하네요. 그렇지만 변함없이 우리는 등을 밝혀야겠죠. 그런데 등을 밝히는 마음은 어떠해야 하는지요.

답변 : 옛날에 이런 점이 있었죠. 모두 사월 팔일이 돼서 등을 그냥 쫙 모두 켜 놨습니다. 그냥 애를 못 낳으니까 애를 낳게 해 달라고 모두 젊은 보살들이 앨 썼습니다. 그럴 때 수천 명이 등을 달았습니다. 그건 내가 그 자리에서도 본 일이죠. 그런데 어느 스님께서 이런 말을 했죠. "등불은 등불이로되 등불이 하나도 없구나." 이랬습니다.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 끄트머리에 그 가난한 어느 농부입니다. 가난한 농부에다가 아주 찢어지게 어려워서 남들은 눈에 빠진 버선을 벗고 양말을 새거를 신을 수가 있었는데, 그분은 어려워서 눈에 빠져서 젖은 거를, 그냥 그 시꺼먼 거를 신고, 그 젖은 거를 벗고는 맨발로 그냥 시뻘게 가지고, 그 등도 살 돈이 없어서 초 하나만 사 들고 온 거를 뭐, 이렇게 종잇장으로 둘러놓고는 글쎄, 거기다가 켜고 있더군요. 그래서 "허허, 아무리 뇌성벽력이 치고 아무리 눈보라가 치고 비바람이 친다 하더라도 저 불은, 그 초는 꺼지지 않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지금 원주에서 갑부 부럽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냥 정말 인등을 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촛불 켜는 게 불인 줄 아십니까? 내 마음의 인등을 켜야 됩니다. 인등이라는 것이 무슨 요만한 그릇에다가 꼬리표나 해서 붙이고 불 켜는 게 인등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불을 켜고 진실하게 자기 주인공을 믿음으로써 일체제불, 일체 보살이, 천백억 화신이 다 여기 한꺼번에 찰나에 들고 나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떠나서는 절대 그것은 공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업 부도 위기에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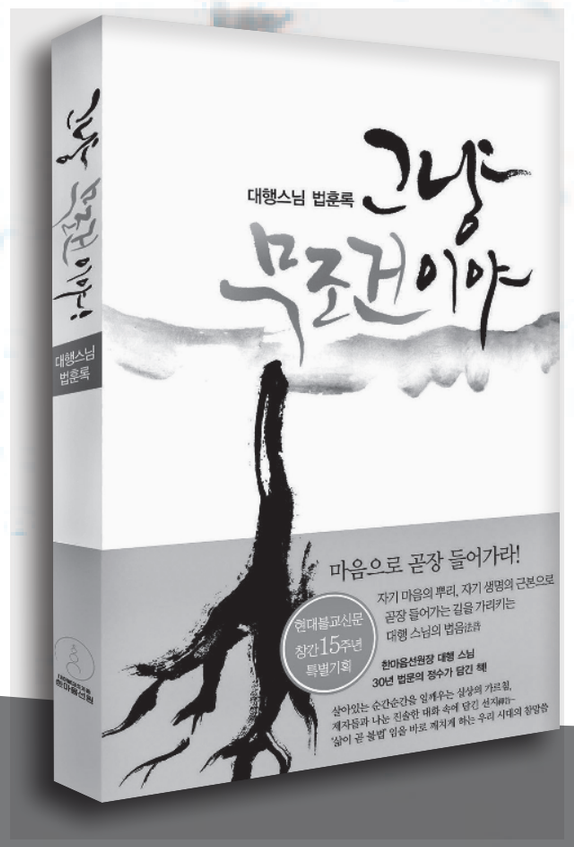
질문 : 제 큰아들이 친구랑 조그마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란 녀석이 글쎄, 돈을 갖고 도망을 가 버렸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자금이 안 돌아 겨우 유지하고 있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일이 터졌으니 지금은 바로 부도 직전입니다. 돈이 들어와야 살릴 수 있는데 열심히 관하고는 있지만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답변 : 처음부터 모든 것을 믿어야 내가 놓을 수도 있는데 믿지를 않으니까 놓을 수가 없거든요. 믿으면 그때는 그냥 누가 놓지 말래도, 거기다가 맡기지 말래도, 맡겨 놓지 말래도 탁 맡겨 놓고 자기가 떳떳하게 해 나가거든요. 믿지 못함으로써 바로 거기다가 맡겨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맡겨 놓을 때까지 내가 이거를 지금 리드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체험을 해 보시라 이겁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체험하면서, 체험을 함으로써 자기를 믿으면서, 믿는 반면에 물러서지 않고, 참 즐거움을 느끼고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진실히 믿기 때문에 거기다가 다 맡겨 놓을 수 있는 겁니다. 누가 곧장 죽는대도 그

☞ 18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시대의 참 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mahamall.co.kr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마하몰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콧방귀 탁 뀌고 그 뿌리에다가 놔 버려야 합니다

☞ 17면에서 계속

까짓 것 겁도 안 나요. 다 맡겨 버리니까! 맡겨 놓으니까! '내가 금방 죽는다 하더라도 걱정이 없다.' 이만큼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체험을 못 해 봤기 때문에. 자기 위력이 그렇게 광대무변하다는 걸 체험을 못 해 봤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건을 잔뜩 해 놨는데 아, 외국에서 괜히 트집을 잡고선 물건을 도로 빠꾸를 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금은 달리는데다가 그렇게 됐으니 큰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딴 데다가 그것보다도 더 싸게 다 넘겼답니다. 그런데 돈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또. 그러니 진퇴양난이에요. 밑지고도 지금 넘겼는데.

그래서 인제 여기 와서 설법을 듣고 갔습니다. '예라, 당신이 계시다면 당신이 알아서 돈을 받게 하든지 우리 식구를 다 죽이든지 맘대로 해라.' 하고 그냥 아예 인젠, 너무 이게 골치가 아프니까 다 놓고선 그냥 방에 그냥 뒈쓰고 덜컥 드러누웠답니다. 그랬는데 얼마쯤 자다가 보니까 꿈에 "일어나, 임마! 드러눠 있는다고만 해서 뭐, 다 맡기고 놓는 건 줄 알아? 일어서 다니는 것도 다 놓는 거야, 임마. 일어나!" 그러더랍니다. 그런데 쓱 꿈에 보니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발만 보이더랍니다. 발은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은 그, 삼베 있죠? 삼베로다가 행전을 치고요, 그냥 짚신으로 신은 저것만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 깨 가지곤 '이거 이러고 있을 게 아니로구나. 내가 맡겼으면 바로 내 몸뚱이도 움죽거려야 되는 거구나.' 그러고선 슬슬 그냥 생각도, 받으려니 생각도 없이 그냥 갔답니다. 그랬더니 아, 반가워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쌀쌀하고 돈 없다던 사람이 "아이고, 당신이 그걸 나를 믿고 그렇게 줬는데 참 고마웠소. 그러니 돈 가져가시오. 그러고선 조금 떨어지는 건 한 닷새 있다 드릴게요. 이렇게 좋은 분인데…." 아, 이러더랍니다. 그래 그 돈을 받아 가지고 말입니다, '야, 내가 생각하고 맡겨 놨으면 몸도 움죽거려야 되는구나.' 또 그걸 배웠답니다.

그래서 부지런한 거, 이 마음으로 믿는 것도 부지런하게 진실로 믿고, 몸도 또 부지런하게 뛰어야 하고, 같이. 뛰는 것도 거기서 뛰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 일체 사는 게 거기서 내고 들이고 하는 거죠. 그래 믿고 그렇게 한다면 모두가 일이 좀 순조롭게 풀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자기 몸뚱이가 갔어도 마음에 다 맡겨 놓으니까 말도 화가 안 나더랍니다.

그전에는 그냥 가서 "그래, 이 도둑놈아! 왜 여직껏 돈을 안 주고 그래? 떼먹으려고 그러면 아주 떼먹어라, 이놈아!" 이러고 했는데 아, 그때는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눅눅해지는 게 아주 영 뭐, 상도 찌푸려지지 않고 그냥 싱글싱글, 참 마음을 편안하게, 온화하게 가니까 아이, 처음에는 그냥 놀라는 기색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그 얼굴로 해 가지고 한번 다녀온 후로 또 가니까 그렇게 반가워하면서 그렇게 주더랍니다.

그런 일도 있듯이 내 마음이 그렇게 넓고 슬기롭고 좋은데 왜 그 사람 마음이 좋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이 오그라지고 참, 펴지 못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나가면 상대방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냐. 안 보이는 데의 그 향, 향기처럼 내 마음의 그 에너지가, 즉 말하자면 그쪽의 주인공과 내 주인공이 함께 그 공생, 공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악하게 쓰면 그쪽도 악하게 나옵니다. 그거는 내가 몸뚱이로 그렇게 악하게 안 해도 스스로서 벌써 악하게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면은 몸뚱이, 말 이것만 중요시하지 이 마음 씀씀이는 중요시하지 않거든요. 저놈이 나를 가지고 욕하고, 한 대 쳤다고 그것만 중요시하지, 자기 마음 씀씀이를, 자기가 생각한 건 생각 안 해 보거든요.

냥 차이면서 그냥, 그냥 넘어졌죠. 펄떡 주저앉는다는 게 어디 가 앉았느냐 하면 그 이만한 풀 덩어리, 예전에 삘기풀이라고 있죠? 거기 그냥 어떻게 엉덩방아를 찧었는지 정말 눈에 불이 번쩍 났습니다. 그 순간 뭘 생각을 했느냐 하면 '옳지, 네가 그런 놈이지!' 거기서 들어오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이 주인공, 이 공생 공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만약에 영 영 하면 영 영 영 영, 수만 개가 있어도 영 하나로 돌아가지 그것이 딴 데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은 체가 없는데 아이구, 딴 데서 나온 게 없다. 저한테서 나오고 제가 놀라는구나! 제 방귀에 제가 놀랐어!' 하면서 도로 그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떡 버티고 앉아서 생각을 한 것이 '흥, 나갈 것도 없고 들어올 것도 없는데, 네놈이 그래 놓고 네가 놀랐구나.' 하고선 탁 틀고 앉아 있으니깐 웃음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곤 그거 간 곳이 없어진 거죠.

그래 웃음이 저절로 나와서 척 기대고 웃으면서, 싱긋이 웃으면서 눈을 감고 있으려니까야, 그렇게 사람이 참, 그 아무것도 없어도 그렇게 부자일 수가 없어요. 세상에, 묘지 하나를 가지고, 이 우주의 삼라만상의 전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야, 참 가르쳐도 톡톡히 가르친다. 다짜고짜 그냥 칼이 들어오는구나!' 이랬던 거죠. 그 은사가 무예를 가르칠 때 무예를 웬만큼 가르쳐 가지고선 자기하고 시합을 또 시키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능가할 수 있어야 "넌 나한테 더 배울 게 없다." 하고 내놓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바로 그런 시험이 오는 겁니다. 웬만큼 체험을 하고 돌아갈 때는 바로 그런 시험이 옵니다. 급작하게, 자기로만 왔으면 좋겠는데 자기의 그 집안 식구들한테 오거나 그럽니다. 이거는 정말 죽을 노릇이죠. 그러니 그런 것에도 속지 마시라 이겁니다. 속으면 내 꼴이 되니까요. 나도 그때 한번 속아서 그렇게 뛰어 본 예가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때 식구도 없고 홀홀히 그렇게 다녔으니깐 아마 나한테 그렇게 됐지마는, 여러분들은 속가에서 살림하면서 제일 식구들을 위해서 사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한다는 식구들한테 그 시험이 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제일 여러분들이 귀하게 생각하는 돈에 오거나 이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도 속지 않는다면 금방 돌아섭니다. 그래, 그런 체험을 해 보시면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그 속지 않는 자기 참마음이 바로 부처니깐요.

불쑥불쑥 거친 말이 튀어나와요

질문 : 저는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불쑥불쑥 거친 말이 튀어나와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곤 합니다. 그러곤 곧 후회를 하고 반성하지만 쉽게 고쳐지질 않습니다. 늘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고 싶은데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 가끔 보면 여러분은 몽땅 버리지 않으시고…. 저 나무들도 그 뿌리에서만이 싹을 돕기 때문에 바람이 부나 비가 내리나 눈이 오나 뜨거우나, 하여간에 어떠한 뜨거운 고가 닥쳐도 그냥 편안하게 거기에 안치하고, 한마음이 돼서 편안하게 지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자기 뿌리를 믿지 못해서 편안히 마음을 갖지 못하시는 거 같아요. 어떤 분은 편안하시고 어떤 분은 편안치 못하고 어떤 분은 더 편안치 못하고 어떤 분은 방방 바깥으로 뛰시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 나무들이 말입니다, 모진 바람이 분다고 해서 싹이 아무리 방방 뛰어도 그것은 소용없는 일 아닙니까? 그 마음이 문젭니다. 아무리 바람에 휘날리고 폭풍이 불어도 끄떡없이 마음이 한마음이 돼서 뿌리를 지키는 마음! 그 뿌리가 성성하게, 그 뿌리를 깊이 박고 싹을 조금도 흐트러지게 안 하는 그런 그 나무들의 이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 싹과 뿌리가 어떻게들 하고 있나. 바람이 분다고 온통 난리를 피웁디까? 아무리 흔들려도 그 뿌리에 매달려서 끄떡없이 갑니다.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콧방귀 탁 뀌고 그 뿌리에다가 모든 것을…. 우리가 진짜로 믿는다면 뿌리에다 맡기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대로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거기다 맡기고 안 맡기고 간에 거기서 다 뿌리와 싹과 통신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말입니다, 어떻게 마음입니까, 그게? 마음이라는 것이 그냥 불쑥불쑥 만나면 얘기하고, 불쑥불쑥 만나면 보고, 불쑥불쑥 만나면 듣고, 불쑥불쑥 그냥, 그냥 여여하게 말하고 듣고 행하시죠. 누구한테 내가 이렇게 행한다 하고 행하지 않으시죠. 누구한테 말한다고 하지 않으시고 말하시죠. 본다고 하지도 않죠. 듣는다고 하지도 않죠. 그럭하고서 그대로 여여하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여여함이 그대로, 여러분이 그대로, 그 마음이, 마음속에서 그렇게 나오는 그 여여함이 그대롭니다, 그대로!

부처님이 왜 부처님이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악과 선을 다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악과 선을 갖추어서 그걸 둥글릴 줄 알기 때문에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32상에 80종호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라도 요만한 거 하나 빼놓지 않고 모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에게만 부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생명이 있는 존재라면 다 불성이 있는 겁니다. 그게 자불입니다.

근데 지금 그 마음이 문젭니다. 마음이 때에 따라 화가 나면 욕도 하고 그러죠. 욕도 나오고 아이고, 그냥 좋은 말도 나오고 거친 말도 나오고 이러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냥. 그대로 정상이란 말입니다. 그대로 정상을 그대로 여여한 줄 알라 이겁니다. 만약에 거친 말이 안 나온다면, 선한 말만 나오고 좋은 말만 나온다면 그것은 부처가 아닙니다. 모두가 부처라는 것은 평등공법에서 나오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 법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욕을 한다고 그래서 욕이 업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겁나시죠? 항상 제가 그렇게 해 나왔으니까 좋은 말을 쓰시라고 하고, 언짢은 말은 쓰지 마시라고 하고 이렇게 한 것은 여러분들이 언짢은 걸 언짢게, 언짢다는 걸 알고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게 언짢아지는 겁니다, 그게. 참 이해가 안 갈 소리죠. 이게 아니다 기다, 이건 있는 거다 없는 거다, 부처님은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러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양면은 다 본래 갖추어진 본연의 자리에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그냥 여러분들이 마음 쓰고 밀고 나가는, 물러서지 않고 밀고 나가는 그 마음이 그냥 공법입니다. 공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하시고 행하시고 보시고…. 그런데 옛날에 "뜰 앞의 잣나무니라." 한 거 말입니다. 왜 잣나무만 부처겠습니까? 우리가 전체 어느 거 하나 공안 아닌 게 없고, 법안 아닌 게 없고, 부처님 아닌 게 없고, 생명 없는 게 하나도 없으니깐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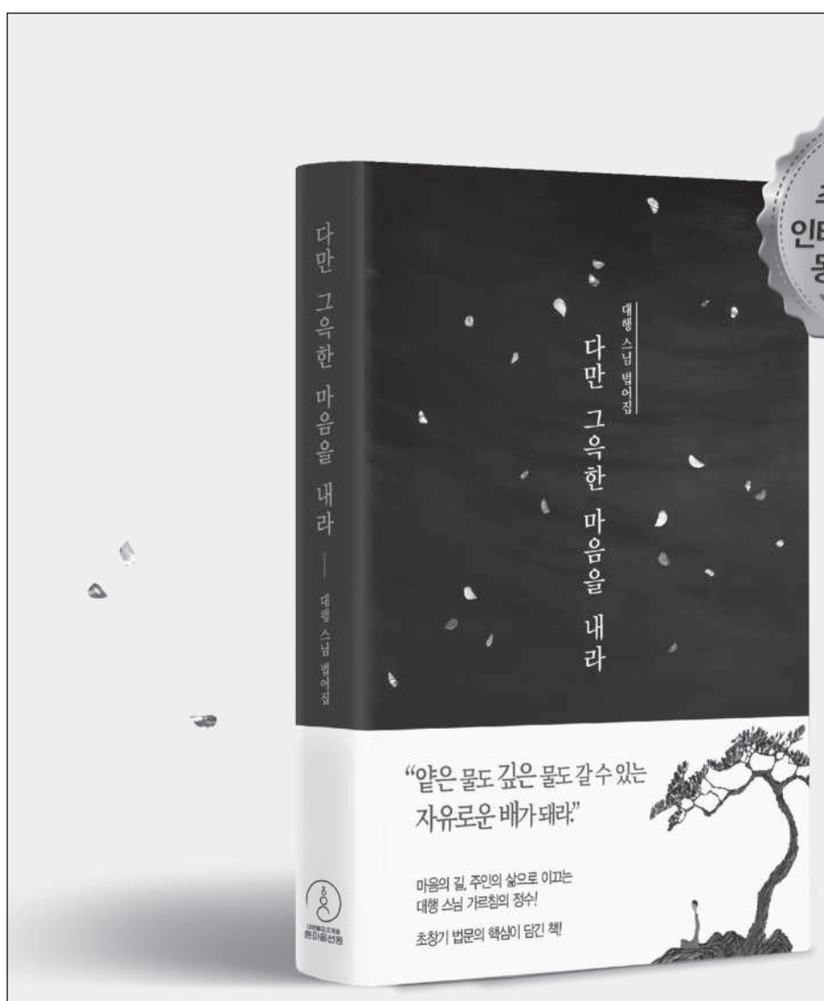
그러니 모두가 우리의 스승이고, 그네들에 우리가 스승이고 서로서로의 스승이란 말입니다.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얕고 이런 게 없습니다. 단 하나, 차원이 낮으면, 여러분들이 이 도리를 모르고 차원이 낮으면 낮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오니까 그건 낮은 중생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모든 모습도 이 세상에 나오고, 모든 모습이 행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만나는 것도 전부 거기에서 그 빛이 풍기는 겁니다.

이 장사를 하든지 사원 노릇을 하든지, 쪼그마한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모든 것을 실험해 보세요. 안 되는 것도 '아하, 나를 실험해 보기 위해서 안 되는구나.' 하면은 금방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장사를 하든지 또 사원 노릇을 하든지 회장 노릇을 하든지 사장 노릇을 하든지, 하다못해 쪼그마한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모든 것을 실험을 해 보세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아하, 나를 실험해 보기 위해서 안 되는구나.' 하면은 금방 없어져요.

또 이런 예가 있었어요. 옛날에 산에 올라가서 인제 항상 모든 거를 맡겨 놓고서 이렇게 살아나가는 사람이죠. 그랬는데 하루는 나도 속은 예가 있어요. 나는 묘지를 찾아서 묘지에다 기대고 잠을 잤거든요. 그냥 허청 뭐, 나무에다가 기대고 자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침입을 했다 하면서 뭐 훔치러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머리를 산발을 하고 그런 게 와락 나타났습니다. 어떻게나 놀랐는지 말입니다, 그냥 갑자기 생기는 일이라. 갑자기 생기는 일이라도, 적이 갑자기 생기지 그럼 뭐, 적이 갑자기 안 생깁니까?

그런데 그때에도 대치할 수 있는 뭐가 완벽해야 되는데 완벽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거기서 놀라선 뒷걸음을 쳐서, 여기서 저 버스 종점 나가는 데까지 뛰었단 말입니다, 뒷걸음을 쳐서. 뛰다 보니까는 그냥 발뒤꿈치가 그



전국 주요 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 동시 판매중!

다만 그윽한 마음을 내라

대행 스님 법문의 정수가 담긴
2019년 최고의 결정판!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 초창기 법문의
핵심을 모아 한 권으로 엮은 책

삶의 지침이 될 지혜의 가르침들이
내 마음에 꽃이 되어 피어나다!

한마음선원 출판부 엮음 | 양장본 | 총 384면 | 책값 18,000원

현대불교신문사 02)732-1520 무진향 031)470-3118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용수 스님의 아침편지

조건 없는 행복과 사랑

행복은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그래도 행복해야 합니다. 조건 없는 행복이 우리의 본성, 중심입니다. 중심을 결코 잃지 마세요. 조건 없는 행복을 약속하고 연습하십시오. 사랑 역시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그래도 사랑해야 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중심으로부터 결코 벗어나지 마세요. 조건 없는 사랑을 약속하고 연습하십시오.





진광 스님의 길 위의 풍경들

⑧ 동티베트– 마지막 여정

한국불교 '오래된 미래'를 만나다

간쯔에서 성도로 돌아가는 길, 고갯마루에 잠시 내렸다. 멀리 설산을 배경으로 오색의 타르쵸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이곳에서 2014년 세월호 침몰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노란천에 추모의 글을 적어 매달며 그들의 명복을 비는 시간을 가졌다. 못다핀 꽃과 같은 그 어린 영혼들이 천개의 바람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서는 고통과 슬픔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빈다.

그런데 한 비구니 스님이 서럽게 눈물 흘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알고보니 순례 중 속가 모친께서 돌아가셨는데 워낙 오지인지라 가보지 못했다고 한다. 얼마나 비통하고 황망할까 싶어 필자도 모친의 극락왕생을 함께 빌며 그 마음을 함께 나누어 보았다. 아마도 좋은 곳에 가셨으리라 믿는다.

아무래도 올 적 보다는 마음이 편해서인지 즐겁고 행복한 모습들이다. 버스 안에서는 이번 순례에 대한 감상과 서원을 나누는 자리가 있었다. 모두 이번 순례를 통해 새로운 신심과 원력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노라고 말한다. 이런 모진 환경 속에서도 삶과 수행을 이어가는 티베트 스님과 불자들의 모습에서 자신을 뒤돌아보는 소중하고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찬탄과 감사를 표현했다.

운문사 일진 스님의 애창곡으로 우리 순례 주제가이기도 한 길옥윤 작사 작곡의 '순례자' 라는 노래소리가 들려온다. "당신은 꿈 찾는 방랑자/ 마음의 길가는 나그네/ 인생도 사랑도 끝이 없는 길/



천년고찰 혜원사 모습.



혜원사 법당이 화광삼매에 들어 꽃으로 불타며 소신공양하는 모습.

타르쵸 앞에서 세월호 추모기도
천년고찰 혜원사 유채꽃밭 감동
先師 위법망구 정신 깊이 새겨

멀고 먼 고갯길// 꿈꾸는 바다에 별뜨면/ 불타는 사막도 잠들고/ 외로운 순례자 거친 발길에/ 단풍이 깊어가네// 멀고 먼 하늘과 뜬 구름/ 외로운 들판에 무명초/ 별이여 달이여 어린 잎새여/ 내 너를 사랑하리!" 일진 스님의 진솔하고 청아한 노랫소리에 하얀 설산과 장대한 장강 상류의 물결이 어우러져 진한 감동과 환희로 가슴을 물들인다.

돌아오는 길에 혜원사(慧遠寺)에 들렀다. 이곳은 1729년에 건축된 궁전식 사원으로 7세 달라이라마 갤상갸초(格桑嘉措)의 피난처이다. 또한 1838년 11세 달라이라마 캐둡갸초(凱珠嘉措)가 출생한 곳도 이 근처이다. 사원 입구에는 노란 유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지천으로 널려있다. 온통 황금빛으로 장엄하는 유채꽃의 향연앞에 마치 정토에라도 온 듯한 느낌이다. 입구 양편에는 티베트 불탑인 초르텐이 설산을 배경으로 100여 개 넘게 장엄하게 자리한다. 입구를 지나면 7세 달라이라마의 피난 행궁인 라오뎬(老殿)이 장엄히 서 있다.

라싸의 포탈라궁에 비하면 아주 소박하고 아담하며 한산하기만 하다. 초록 기와를 배경으로 티베트 사원의 상징인 법륜과 사슴 한 쌍이 황금빛으로 장엄히 자리한다.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너른 마당의 지천으로 피어 만발한 야생화풀꽃의 향연이다. 그야말로 꽃대궐이 이러할까 싶을 정도로 아름답기만 하다.

라오뎬 꽃대궐 계단에 비구니 스님들이 모여 기념촬영을 하는데, 활짝 웃는 모습이 꽃보다 훨씬 싱그럽고 아름답기 그지없다. 역시 사람이 꽃보다 더 아름답다는 노랫말이 진실로 맞는가보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천상의 미소와 행복의 순간을 보았노라! 실로 행복의 충격과 전율에 젖어 행복하였네라!

간쯔에서 리탕, 캉딩, 루딩을 거쳐 돌아오는 길은 동티베트의 자연과 옛 차마고도의 길을 느낄 수 있는 실로 꿈결처럼 아름답고 마음이 행복한 길이다. 그 길에서 만난 자연과 사람, 그리고 순간의 꽃과 같은 작지만 소중한 의미의 깨달음과 함께한 모든 순간들이 영원하고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드디어 성도(成都)로 돌아왔다. 실로 다사다난하고 험난한 고난의 대장정이었지만 뿌듯하고 행복한 마음이다. '정말로 가볼 수 있을까' 라는 의문도 들었지만 지도법사 정우 스님의 자비와 대중 스님들의 덕화로 영원히 잊지 못할 추억과 함께할 수 있었다. 마오쩌뚱(毛澤東)의 말처럼 "난관이 있는 곳에 가야할 길이 있다"라고 했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어이 동티베트 순례를 원만히 회향할 수 있었음에 감사할 따름이다.

다음날에는 제갈공명의 사당인 '무후사(武侯祠)' 를 돌아보고는 시내에 위치한 대자사(大慈寺)로 향했다. 이곳의 진영각(眞影閣)에 신라 정중무상(淨衆無相) 선사의 진영이 모셔져 있기 때문이다. 천년이 지나도록 이국의 선사 진영을 모셔오고 있는 것이 실로 놀랍고 감사한 마음이다.

정중무상 선사의 진영에 향을 살라 참례하고는 스님의 선법과 덕화를 숭앙하며 찬탄하였다. 그리고는 소동파의 친필인 '대웅보전' 현판이 걸린 대웅전에 들어 이번 순례의 화향식과 함께 추모제를 봉행하였다.

신라 정중무상 선사와 티베트 제자인 바세와 세르난을 비롯해 수많은 해동 천축구법승과 대당 유학승, 그리고 구산선문을 이룬 선사들을 추모하는 자리였다. 그들의 위법망구의 구도열과 행화가 있었기에 오늘날의 조계종이 있는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할진대 선지식들의 뜻을 이어받아 한국불교를 중흥시킬 책임이 또한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다. 앞서간 선사(先師)들을 기억하고, 기록하며, 기리는 일이 곧 한국불교의 새로운 길과 희망을 만들어 가는 일이라고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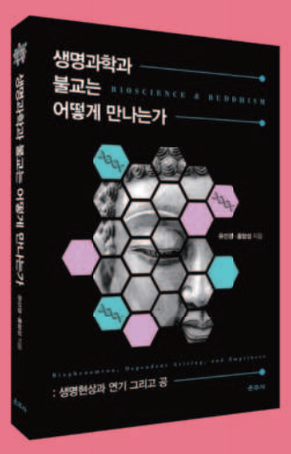
아울러 이번 순례 경험을 통해 자신의 삶과 수행에서 새로운 신심과 원력으로 저마다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길 바라마지 않는다. 마오쩌둥의 "이것은 단지 만리장정의 첫 걸음일 따름이다.(這只是萬里長征的第一步)"라는 말처럼, 이제 새로운 나의 첫 발자국과 시작일 따름이다. 이 길 위에서 모두가 진실되고 행복하기를!

〈조계종 교육부장〉





불교를 통해 생명현상을 이해하고,
생명현상을 통해 불교를 이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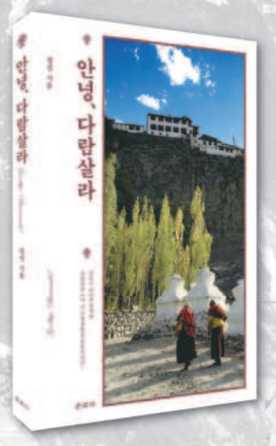


생명과학과 불교는 어떻게 만나는가

본질주의에 입각한 서구의 생명과학은 생명현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불교의 연기와 공의 관점**만이 현대 생명과학이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유선경, 홍창성 지음/국판 무선/336쪽/값 15,000원

30년 동안 다람살라에 머물며, 스승 달라이 라마를 모시고
수행과 봉사의 삶을 살아온 청전스님이 풀어놓는 이야기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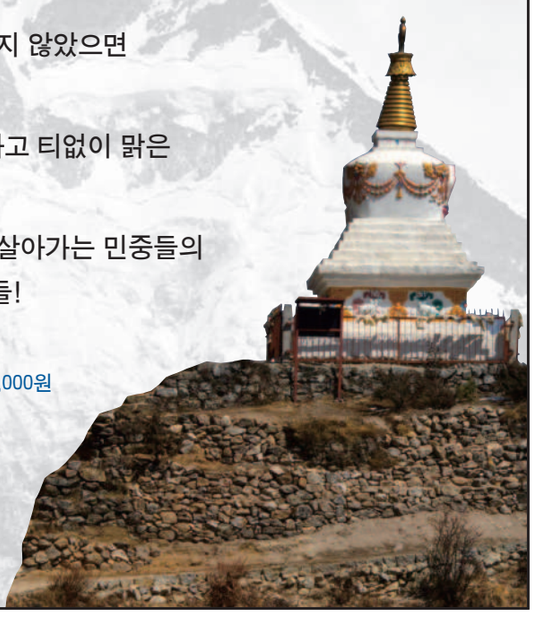
안녕, 다람살라

달라이 라마를 직접 모시지 않았으면
경험하지 못했을 일화들!

어린아이처럼 순진무구하고 티없이 맑은
노스님들의 이야기!

오로지 부처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민중들의
소박하고 감동적인 모습들!

청전 지음/국판 무선/200쪽/값 14,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복과 지혜를 구하십시요"

달마도와 포대화상도, 나한도, 동자승 등 수많은 불교그림들을 그려온 청곡 이한동 화백님의 작품을 집안에 모셔두면 그림에서 발산하는 기운은 가정을 평화롭게 하고 가족의 건강과 어려운 일들을 순조롭게 풀어줄 것이며 만사가 형통할 것입니다.

一切衆生皆有佛性 (일체중생개유)

1. 불성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자비와 방생은 불자라면 누구나 지녀야 할 기본성품이며 관세음보살께서 방생하는 모습은 사부대중 모두에게 귀감이 될 것이다.

2. 나한은 아라한의 준말이며 그 중에서도 16나한은 가장 대표적인 나한이다. 나한은 해탈과 신통력을 두루 통달하였고 더 이상 열반에 들지 않고 영생을 누리며 많은 권속나한들과 함께 세상의 여러곳에 거처하며 불법을 수호하고 중생들의 복전이 되어 줄 것이다.

3. 황룡나한과 북호나한은 16나한과 함께 18나한으로 그려지기도 하며 황금색룡을 타고 다니며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에게 복을 전해주는 황룡나한과 들어온 복을 지켜주고 삼재를 소멸하여 중생에게 수호신이 되어주는 복호나한 두분나한을 모셔두면 집안이 만사형통하여 하시는 사업과 자녀의 진학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이다.

▣ 수강생 모집

청곡 이한동 화백님의 그림을 배우고 싶으신 분은 현불샵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 거리라고 하는 서울 인사동에 미술 교육관을 개설하여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주2일 월8일 동안 그림강의를 합니다. 수강료는 월10만원이며 그림 내용은 산수화, 풍속화, 달마도, 동자승 등을 지도하며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주문 : 마하몰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1. 관세음보살



2. 16나한


3. 황룡나한 / 복호나한

길이 110㎝ 폭 54㎝ 가격 100,000원이며 두점이상 구입시 90,000원 나한도를 구입하시는 분에게는 16나한이나 18나한도의 설명서를 드립니다.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천광수련원 TEL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